

정신대문제 자료집

《수정증보》



美동부지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1945년 해방 이후 반세기가 가깝도록 전혀 언급되지 않고 감추어졌던 일제 치하의 정신대 문제를 신문이나 방송으로 접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억울하고 분하며 아픈 가슴을 여게할 길 없습니다.

진작 증언하고, 고발하고, 기록하였을 이 기막힌 역사의 상처를 그동안 우리는 속으로만 괴로워하며, 개인의 불행으로만 제한 하였습니다. 나치독일에 의한 유대인 수용소 감금 학살사건을 치밀하게 들추어 내어서 세계사의 한장으로 남기고,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은 이스라엘과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인디안학살로 얼룩진 미국의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의 근대사를 사실대로 바르게 보여주는 일은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기도합니다. 일본이 범한 이 여자정신대 사건은 이제 온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아 마땅하며, 짓밟히고 찢겨진 피해자들의 인권보상을 위한 방법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수치스런 과거를 사과하고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Hot Line을 설치하여 옛 병사들의 증언을 모으며 한국의 피해 여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 세대인 세분대표의 인도로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가 발족된지 두해째, 이를 전국의 여성단체가 후원하여 일본정부에 항의하며, 양국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엔 등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동원자 중 200여명이 근로 동원자, 60여명이 중군위안부였음을 신고하여 결코 보상되어 질 수 없는 상처를 내보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도 이 운동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노령에 어렵게 사시는 피해자들의 생활을 보살피 드릴 방도 또한 시급하다 합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가 이 운동을 돕고, 감추어져 있던 우리의 아픈 근대사를 좀 더 정확히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권당-10불)을 판매한 이익금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로 보내어 지겠습니다. 이 일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美동부지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드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9절)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장 3절)

머릿말

해방된지 46년, 허리가 잘린지 46년.

일제 때 애국봉사대 근로봉사대,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4세부터 30대의 이 나라여성들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다.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그 분들은 지금까지 역사의 암흑속에 묻혀있다.

일제와 "정신대" 정책에서 우리는 일제의 조선식민지정책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이분들이 이나라의 명예를 짊어진 이나라의 주인공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까지 정확하게 몇사람이 끌려갔는지, 몇사람이 죽었는지, 몇사람이 귀국했는지, 나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있다. 그런가 하면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정신대" 사실을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고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는 그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설명문의 복사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건네 주는 것을 거절했다. 입으로 설명은 할수있어도 복사물이라도 줄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속았던 강제로건 간에 이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했던 이분들을 우리는 영원히 두번 죽게 할 수 없지 않은가. 역사적인 모든 사실을 규명해서 이제라도 이분들의 고통을 나누어야 할줄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정신대" 사실을 최대한 캐내서 1990년

10월 17일 한국여성단체가 일본정부에 요구한 6개 사항을 받아드리도록 하는 것일줄 안다. 이일은 아직도 되자 않고 있는 일본의 조선침략에 대한 배상문제 전쟁책임문제, 전후처리문제의 일부해결을 담당하는 것이 될줄안다. 그렇게되면 이나라의 분단문제를 비롯해서 일본 식민치시대를 벗어나지못하고 있는 여러부문에 큰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로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할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3. 만행의 전모를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 교육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칠것.

1991. 5. 2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 동 대 표 박 순 금

이 호 재

문 정 옥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

장 정 일 (시인)

뉘라서 그대 피물은 전신을 씻어
그대 찢긴 심장을 기워
온전히 잠들게 하라
조국보다 먼저 짓밟히고
해방보다 먼저 잊혀진
역사의 눈물꽃이여
왜놈의 밭짓개 군수품으로 농멸된
박꽃 같은 그대
뉘라서 그대 원혼을 잠재울 수 있으리

슈생야에 속아
황국보은 하라는 여성지도자의 연설에 속아
세탁부 재봉사로 떠난, 김서방 박서방의 딸
검정 치마 흰 저고리 순결한 그대는
낮에는 노역 밤에는 위안부로 온몸이 찢기었네

호카이도 오키나와 타이 파푸아뉴기니에서
하루에도 수백 번 농육된 그대의 여성 그대의 인권
옷 벗겨 내쫓기고 절벽에서 투신할 때
어머니 어머니
피땀히게 불렀건만
그대 조국도 어미도 아비도 오라비도
그대 제삿밥 한 그릇 없이 오십 년 구천을 헤매었구나

그대 이 땅에 서럽고 아픈 십자가여
짓밟힌 들꽃으로 다시 일어서 피어나
부끄럼에 한스런 우리를 일으키고
배반의 치떨리는 조국을 어루만지는가

치렁한 머리 눈매 순한 열여섯 꽃다운 처녀가 아니라도
이제는 돌아와 편히 쉬소서

I.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자료*(참고)

(1) 정신대, 무엇이 문제인가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내가 알기로 서울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강연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오늘은 이문제에 대해 개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즉,

1. 우리가 쉽게 정신대라고 하는 낱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2. 이 중에서 우리가 정신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중군위안부는 중일전쟁과 제2차세계대전 중 어떤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강요당했는가.
3. 일본이 패전한 후 이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4. 이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며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제1장 정신대의 종류

우리나라가 일본에 침략을 당하기 전에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중국으로 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출"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오늘은 일본과의 관계에 국한해서 생각하기로 한다.

1. 일본은 명치시대에 들어서며 백인이 미국 인디안을 속여 북아메리카를 빼앗듯이 아이누에게서 홋카이도(北海道)를 빼앗았다. 이 홋카이도를 개척할 노동력이 필요했다. 또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일본은 이겨서 동해에 면한 시베리아의 벌목권과 그 연안의 어로권을 획득했다. 이 이권을 행사하는데도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시작한 산업혁명으로 오사카에는 큰 제사(製絲)와 방직(紡織)공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해서 홋카이도 개척과 시베리아의 벌목과 그 연안의 고기잡이에 우리나라 남성이 많이 가게 됐는가 하면 오사카공장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많이 갔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1910년을 전후해서 시작된

다. 한편 조선에서는 젊은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일본에 갔다. 가서 보니 그들의 임무는 방금 말한 바와같이 일본에 노동력을 팔기 위해 가 있는 조선남성들에게 매춘하는 일이었다. 이 중에서 홋카이도의 길잡이, 철도 놓기는 거의 조선남성의 몫이었다. 이 남성들을 위해 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본기업은 돈을 벌게해 주겠다, 공부하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이들 상대로 매매춘을 강요했다. 그리고 오사카 공장에서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조선여성들에게 좋은 곳을 알선해 주겠노라해서 홋카이도로 데려갔다. 오사카공장보다 못한 곳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조선여성들에게 일본기업은 매매춘을 강요했다. 1931년 만주사변이, 1937년 중일전쟁이,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도 여기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을 대부분 조선인에게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강제연행된 조선 남성 상대로, 나중에는 일본남성 상대로도 조선여성들이 매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들 여성중에는 오사카공장에서 간 여성들도 있었다. 이들은 좋은 자리를 소개 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간 것이었다. 그런데 생명보다도 정조지키는 것이 여성의 미덕이라고 교육받은 이들 여성들 중에는 자살을 하꼬다메(函館)에 있는 다치마즈미 사끼(立待網)라는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져 자살

* (참고) 이 자료는 지난 1991.5.28 우리 정신대협의회가 주최한 '정신대문제에 관한 강연회'의 강연자료이다. 이대 김용림씨의 시화전도 같이 열었는데 특히 강연 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이 좋아 다시 전면 우리 자료집에 게재한다.

했다. 너무 많이 죽어서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신문에 실리는 것을 중지시킬 정도였다. 지금도
~~하교다페의 다짜마즈미사끼는 자살의 명수로~~
알려져 있다.

이들 여성은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니
지만 배후에 일본관이 있어 기업하고 상인이,
일제 말기에는 관하고 일본군이 작용하여 기업
이나 상인을 통해 조선여성을(상대는 조선남성이
라 하더라도) 일본을 위해 강제로 매춘을 시켰다
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신대" 위안부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이름 그대로의 근로정신대이다.

여자정신근로령은 칙령으로 1944년 8월에 공
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자애국봉사대,
여자근로봉사대의 이름으로 종군위안부가 되기
를 강요받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정신대라는 이
름으로 연행되도 종군위안부가 되어야 하는 경
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경성일보
1944년 1월 신문에 「절대업자가 정신대를 결
성했다」는 보도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을 보면
영이 내리기 전에도 정신대가 결성됐고 이 정
신대는 절대업자가 결성했다는 점에서 종군위
안부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같이 많은
경우에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연행되어 종군위
안부가 돼야 했다. 또는 군수공장이나 탄광에
가서 노동을 해야 했던 정신대원들이 일본감독
에게 성을 침탈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성
문제와는 관계없이 근로만 했던 정신대가 있었
다. 이들은 대구 근처에 있던 방직공장, 규슈
(九州)의 오무타와 나가사키에 있던 탄광, 나
고야에 있던 미쓰비시 비행기공장 등에서 일을
했다. 우리가 종군위안부라는 뜻으로 정신대라
고 할 때 이들에게 상당한 폐를 끼친다. 종군
위안부였던 분들도 본인의 의사는 결코 아니었
지만 정신대로 끌려간 분들 중에는 성문제와는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안다.

3. 여자애국봉사대, 여자근로봉사대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가 매춘을 강요당한 종군위안부이다.

센다가코(千田夏光)씨는 1937년 12월 남평대
학살이 있은 후 조선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연행
해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김일면씨
는 일본이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전
즉 중국 동북부에 있던 관동군이 중국침략
을 결정하고 관동군을 강화하면서 조선여성을
종군위안부로 삼을 것을 결정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관동군에게는 이미 일본위안부가 있었
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직업적인 창녀여서
거의가 나이가 많고 성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동군수뇌부가 군대내의 사기
를 돌리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충당하기 위
해 유교교육을 받아 성병이 없을 것이고, 성병
에 저항력도 있을 17세~20세까지의 미혼여성
을 연행할 것을 정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미 말한 바와같이 일본위안부는 본시 매춘
이 직업이었다. 이들은 조선여성들과 같이 속
거나 강제연행된 경우가 아니다. 이들은 돈을
선불받고 그돈을 갚으면 언제든지 종군위안부
를 그만둘 수 있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장교
를 상대하였다.

조선여성들은 배불리 하루세끼 흰밥먹고 돈
벌이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간 사람이 많았
다. 일의 종류는 군대식당일, 군대의 빨래, 간
호원 조수 등이라고 했다. 토지조사로 땅을 뺏
기고 일본은행에 돈을 댔기고, 조선을 살공급
지로 정하고 일본이 쌀을 가져갔기 때문에 조
선사람은 쌀농사를 지어도 밥을 먹을 수 없었
다. 이런상황에서 「흰밥을 배불리 먹고 돈을
번다」는 말은 충분히 유혹적이었다.

중국본토에서 전쟁이 확대되고 태평양전쟁이
일어나면서는 감언으로 꼬이면서 딸 많은 소작
인을 위협하거나, 딸을 안내놓으면 아버지나
오빠를 징용하겠다고 위협해서 끌고갔다. 1944
년 무렵부터는 밭에서, 길에서, 공장에서, 우

물가에서, 집에 들어가 짐승풀어가듯 사냥해갔다.

이렇게 끌려간 여성들은 중국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태평양 섬으로 가는 배속에서 강간을 당하곤 했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서, 배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 후 부터는 여성들에게 쇠고랑을 채우기로 했다고 한다.

금년 3월 일본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중군위안부는 전쟁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나가노현(長野縣) 마쓰시로(松代)大本영(大本營)의 지하호를 파는 일을 맡았던 일본육군을 위해 마쓰시로에 위안소가 하나 있었다. 또 지바현(千葉縣) 가시와시(柏市)와 나가레야마시(流山市)에 비행장건설을 담당했던 군인들을 위해서 위안소가 셋 있었다고 한다.

지금 남아있는 곳은 이중의 하나였다. 내가 본 곳은 마쓰시로와가시와시의 위안소 두군데 뿐이지만 이 경우로 미루어 보아 일본본토에도 일본군이 일을 맡아 한 곳에는 다른 곳에도 위안소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제2장 중군위안부

아소 테쓰오 군의 '麻生徹男軍醫'가 사진으로 찍은 '위안소 규정'의 일부를 보면 위안소 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30분이고,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자는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선에서 후방으로 잠시 이동된 부대를 맞은 경우, 아니면 위안부들이 트럭으로 일선을 순방하는 경우같은 때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군인들이 10분을 기다리지 못했다고 한다.

1.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오끼나와(沖縄)의 도까시끼(渡嘉敷)섬의 경우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 비하면 상중상이라 말할 수 있다. 5년 3월 미군의 대공습이 시

작하면서 사태는 악화했으나 인근에 있는 자마미, 아까섬과 함께 작은 섬에 7명씩의 위안부가 있어 태평양의 다른 섬에 비하면 수월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2. 우리나라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 지바현(千葉縣) 다메야마시(館山市) 가나다무라에 있는 시로다(埴田) 스킵프는 "군인들을 위해" 위안부가 되었으나 계속해서 들어오는 군인들이 너무 미워 목을 졸라 죽이고 싶은 충동을 한두 번 가져본 것이 아니라고 나에게 증언했다. 중국 동북부에 있던 한 일본위안부는 65명까지는 세웠으나 기절을 해서, 그후 몇명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오끼나와의 한 창녀는 위안부가 되기를 거절한 여성인데 한 조선여성이 공중변소같은 위안소에서 하루 100명을 상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시로다 스킵프가 패전후 귀국했을 때 매독균이 척추에 들어 죽을 줄 알았다. 일본위안부들은 패전후 귀국까지는 시켜주었다. 그러나 남성군인들은 연금이다. 보상이다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황군(皇軍)"을 위해 봉사한 자기네들에게는 연금이나 보상은 물론 의료보험혜택도 없었다. 병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시로다는 죽기 전에 한마디 하리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중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을 공격적으로 말한 것이다.

중국으로 갔던 위안부들 중에는 태평양섬으로 갔던 위안부의 경우와 다른 경험을 한 여성들이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지역이 넓어지면서 군인들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군복을 입고 트럭을 타고 전선을 순회해야 했다. 최전선을 트럭으로 다녀야하니 사람의 눈을 피해 군복을 입어야 했다고 한다. 이때 위안부들은 잘 시간도 먹을 시간도 없어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트럭속에서 던져주는 주먹밥을 먹고 잤다고 한다.

3. 위안부가 전쟁에 참가한 경우를 소개한다. 태평양의 파라오섬의 경우이다. 상륙전을

버리고 있는 미군에게 언덕 한곳에서 끝까지 기관총을 쏘는 사람이 있었다. 드디어 이 군인도 사격되어 올라가서 보니 이 군인은 여성이었다. 미군은 일본군이 여성군인을 데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알아보니 이 군인은 조선인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 조선위안부의 동기가 무엇이던 간에 일본패전 직전에는 위안부들이 그 상황에 따라 무엇이던 했고 심지어 군복을 입고 전투에 참여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위안부들이 상대로 해야했던 일본군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특히 중국으로 갔던 여성들의 고통이 심했다고 생각되어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중국 경우의 특징은 식량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지 국민에게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탈해야 했다. 따라서 일본군대의 분위기는 살기등동했다. 여기에 융통성 없고 잔인한 상무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학대받는 일반 출병의 화풀이는 자연히 조선위안부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 군인들은 잔인함과 융감함을 혼돈하고 있었다. 이런 군인을 중국 전쟁초기에는 원칙적으로 17세부터 20세까지의 미혼여성들이 상대를 해야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나면서 전선이 중국본토에서 태평양의 많은 섬들까지 확대되니 14세부터 30세이상의 애기엄마까지 눈에 띄이는 대로 트럭에 실려갔다. 지금 태국에 사는 노수복할머니는 부산근처 우물가에서 18세때 잡혀간 것이다.

이렇게 끌려간 위안부들은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먹지 못하고 너무 많은 남성을 대하다보니 폐결핵, 변비, 각종 부인병, 그리고 각종 성병에 걸렸다. 그리고 정신병환자가 많이 생긴 모양이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도저히 매춘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는 히로뽕을 투약했다고 한다. 히로뽕은 19, 20세의 가미가제(神風) 폭공대에게도 사용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는 히로뽕은 전쟁당시 징용갔던 남성중에 히로뽕제조에 종사했던 사람이 배워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애기가 빛나는 감이 있으나 가미가제폭공대는 옥쇄(玉碎)하러 나가기전에 무조건 위안소에 보내졌다고 한다. 위안소에서 만난 조선위안부, 대부분의 경우 어린 소녀와 어린 일본소년들은 나라를 초월해서 자기들의 운명을 슬퍼했던 모양이었다. 소년들은 다음날 돌아오지 않는 소년들의 이름을 써서 신위를 만들어 매일 아침 그들의 명복을 빌었다고 한다.

제3장 중군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패전후의 처리

일본의 중군위안부정책에 있어 제일 문제되는 점은 패전후에 위안부들에 대한 행위이다.

1. 중국 한구(漢口) 위안소의 경우와 같이 귀국시킨 경우이다. 중국 각지에 있던 징병, 학도병, 징용부와 함께 상하이에 집결시켜 귀국시킨 경우이다.

애기가 좀 길어지는 감이 있으나 작년 10월 17일 한국의 여성단체가 일본과 한국정부에 공개서한을 낸 보도를 읽은 한 한국남성이 증언해준 이야기를 소개 하기로 한다. 이 사람은 징병되어 중국으로 갔던 것이다. 일본의 패전후 상하이에서 귀국선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에 상하이에 있는 조선 술집을 찾아 다녔다. 그곳에는 한 20개소 있었는데 한곳에 ~5명씩 젊은 여성들이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 여성들이 하나같이 병든 모양으로 거스스려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고 얼굴에는 벌레 쏘인양 빨갛게 부풀려오른 것과 시일이 지나 딱지가 많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 너무 이상해서 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이 좀 나쁠뿐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예상외로 귀국선이 늦어져 기다리는 동안 이들 중에 한 여인을 좀 알게 되었다는

는 히로봉
봉제조에
드 있다는

가제록공
조선 위안
난 조선
어린 일본
운명을 슬
돌아오지
안들어 때

문제가 되
기이다.
같이 귀
병, 한
귀

년 10월
부에 공
이 증언
사람은
의 패전
기간에
후. 그곳
명씩 젊
여성들이
기온이
갈게 부
은 것이
아무것
답했다
다리는
있다는

것이다. 그 여성에게 들은 얘기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한구위안소에 있던 위안부들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성병을 옮은 것이다. 위안소에 있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전쟁이 끝나니 치료를 받지 못해 늘려있던 성병이 밖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귀국선이 와서 승선할때 조선남성들은 전부 좋아라고 승선하는데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승선하지 않았다. 소수의 여성들이 배에 올랐을 뿐이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상륙수속을 받기 위해 배안에서 하루밤을 지내야했다. 이때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배를 탄 소수의 위안부중 2명가량이 바다에 몸을 던진 것이다. 부모형제가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으리라 생각했는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자신들이 아니었을까. 국내에서나 그외에서나 그들은 오늘까지 왜 이렇게 나와주지 않는가.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가.

2. 일본군이 조선위안부를 현지에 버린 경우이다. 일본군은 패전의 소식을 일본위안부에게는 알렸다. 도주할 때 함께 도주했고 배를 탈 때는 간호원조수라는 신분으로 만들어 귀국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위안부에게는 패전의 소식을 알리지 않고 그곳이 어디이던간에 버린 경우가 적지 않은 모양이다.

사할린의 경우를 예로 들겠다. 8월 어느날이었다. 조선인위안부들은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무엇인지 몰라도 이상하다고 느꼈다. 위안소를 지키는 사람도 없고 거리에 사람도 없다.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그들은 역을 향해 달렸다. 역에 와보니 기차에 군인과 그들의 가족과 일본인 위안부와 모든 일본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기차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조선인위안부중 몇이 기차앞으로 뛰어가 두손을 들고 정거해 달라고 했을 때 기차는 그들을 치고 속력을 내었다. 저들의 피는 차체에 튀었다.

내가 읽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 금년 3월

도로에 가서 사할린출신 증의원의원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곳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중 얼마는 불에 타죽었다고 한다. 그리고도 현재 많은 수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3. 일본군이 조선위안부를 죽인 경우이다. 미군의 공습을 피한다던지하는 구실을 만들어 굶이나 참호에 들어가게 해서 굶파시키거나 사살해 죽인 경우가 있다. 지난 3월, 지바정 가시와시에 있는 위안소를 찾았을 때 라바울에 통신병으로 있었다는 일본남성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패전후, 조선위안부 200명을 잠수함에 싣고 기뢰에 부딪히게 해서 전원 죽인 일이 있다고 했다.

제4장 결 론

일본의 소위 "천황"이라고 불리우는 일왕은 일본국가의 가부장(家父長)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가부장인 일왕은 "황군" 즉 일본군인을 "적자"(赤子) 나아가 일왕의 "팔과 다리"라고 불렀다. 다시 말해서 부자간의 관계, 나아가 일제라고 볼 수 있다. 제도상으로도 일본군은 일왕에게 직속되어 있다. 일왕이 일본군의 총지휘자요 총책임자를 갖는 총통수이다. 이런 관계에 있는 일본군은 군안에 절대로 여성을 둘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러나 어느나라 군대보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성욕처리의 수단으로서 여성을 필요로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부장제의 여성천시 사상을 동원해서 여성을 물건 내지 그 이하로 취급해서 목적 달성을 한 것이다.

이와같은 사상에서 나온 일왕과 일본군에 관계였기 때문에 종군위안부는 "천황"이라고 불리는 일왕이 "황군"이라고 불린 일본군에게 "하사품"(下賜品)이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다. 즉 일왕이 일본군에게 자비로써 내린 물건이었다. 물건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선에 수송할 때는 사람 하나를 탄환 한 개짝동으로 서류를

꾸렸다고 한다. 따라서 연합군에게 폭격을 받았을 때 군정과 군마는 몇마리가 죽었는지 알 수 있어도 중군위안부는 몇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임무지에서는 물건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산부인과 의사였던 아소군의(麻生軍醫)는 그의 「화류병의 적극적인 예방법」이라는 보고서에서 "군용특수위안소는 항락의 장소가 아니고 위생적인 공중변소인 까닭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되나 우리가 제일 천시하는 곳, 그것도 현대 화장실이 아니라 재래식 변소, 그중에서도 한 가정용이 아니라 물사람이 배설물을 쏟아놓고 지나가는 공중변소 취급을 위안부들은 받은 것이다.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소모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며 자지도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100명까지도 일본군인을 상대해야 했다. 군인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나면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를 기다려서 병원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중군위안부정책에서 일방을 가부로 앉힌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본질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토지신교제와 화폐개혁으로 땅과 돈을 빼앗아 사람의 살지 못하게하고, 일본어상용과 신사참배로 말과 종교를 빼앗아 조선의 얼을 뺏고, 창씨개명 시키므로써 이름을 앗아가 조선사람으로서의 자아를 잃게 했다.

내선결혼을 장려하므로써 생리적으로도 민족성을 잃게하려하고 젊은 남성을 징용, 징병, 한도병으로 끌고가고 젊은 여성을 정신대와 중군위안부로 끌고가서 민족희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1921년 6월에 김준연(金俊淵) 법학사(法學士)가 「중앙법률신보」(中央法律申報)에 실린 논문에 발표되었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이남에서만 물권중독자가 1만명이상이었다. 그는 당시의 아편과 물권에 대한 법률 다음 같이 소개한다.

아편을 합부로 팔거나 준 사람은 6개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

물권을 합부로 팔거나 준 사람은 3개월이하의 금고 또는 500원이하의 벌금,

아편을 피운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물권을 주사 맞은자는 무벌(無罰),이다.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있는 대만과 중국에서 일본은 겉으로는 아편을 금하는 척 하면서 한쪽에 아편흡연소를 두고 노동의 임금대신 아편을 주므로써 관(官)이 장사를 하고 대만인과 중국인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파괴시켰다. 아편을 피우는 습관이 없고 아편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 조선에서 일본은 그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물권을 이용한 것이다. 김준연은 이는 문물 이와같이 잘못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설마 이와같은 법으로 인정(仁政)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본은 패전과 더불어 조선사람은 일본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위안소의 규정에 의하면 한사람이 위안소안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오 반드시 「돌격 한번」(突撃-番)이라고 불리는 콘돔을 착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시간 기다려 10분만에 나와야하는 경우가 허다 했다. 따라서 콘돔을 착용할 시간이 없거나 착용해도 물권이 너무 거칠었다. 이들이 이와같은 상황에서 모은 군표는 휴지가 되었다. 이들의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손해를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 것인가.

일본은 1991년에 이르는 지금까지 조금도 침략전쟁을 일으킨데 대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전쟁범죄가 높을 수록 연금이 많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1990년 6월 일본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정부측은 중군위안부 사실에 대해 정부와 일본군대는 책임도 관계도 없다는 뜻으로 답변하며 민간업자의 소행으로 돌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는 6개항에 걸쳐 우리의 요구를 제시하는 공개서한을 가이후총리

에게 보낸바 있다. 일본측에서 답변이 없자 금년 3월까지 우리는 2차례 독촉장을 띄웠다. 한편 지난 4월 1일 일본 정부는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 세번째로 중군위안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런일이 있은 후 협의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주한일본대사관에서 우리가 띄운 서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들의 설명으로는 우리의 공개서한을 받고 조사한바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우리가 요구사항 제1로 요구한 "정신대시설을 인정할 것"을 받아드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과도 할 수 없고, 만행을 공개할 수 없고, 비(碑)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배상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정리됐고, 역사교육으로 말하면 일본은 과거 아시아 여러나라를 침략한데 대해 마음아프게 생각하므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도 그랬으나 앞으로도 역사교과서에 반영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세차례에 걸친 서한에 대한 답변 혹은 회답이 아니라 우리의 서한을 받고 조사한 일본정부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협의회에 속한 여러 단체에 되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니 그 설명을 복사해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본국정부의 지시가 있어 입으로 설명은 할 수 있어도 복사물은 줄 수 없다는 답이었다.

이와같이 한일관계에 있어 식민지문제, 전쟁책임, 전후처리는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다. 침략에 대해 누우치지 않고 있는데 될 수 가

없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본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오늘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본단에 있는데 본단의 애초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일본의 다케무라 켄이찌(竹村健一)라는 사람은 우리가 통일을 하면 자기들에게 한이 많기 때문에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고 강연한 바 있다. 이사람과 같이 우리의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이 사람 한사람 뿐일까.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와 본단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바와같이 정신대문제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골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한민족인 우리가 본단으로 인해 정치적 문제로 부터 사사로운 개인에 문제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일본 침략의 결과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줄 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 한국여성들은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들을 두번 죽이지 않기 위해, 우리의 딸과 손녀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신대문제-즉 중군위안부문제를 규명해서 일본에게 요구한 6개항을 받아 들이도록 해야 하겠다. 이일을 하기위해 일본에 있는 양심 세력과 우리과 같은 입장을 가지는 한국 남성들의 협력을 얻어 정신대할머니들이 더욱 건강이 나빠지기전에 일을 서둘러야 할줄안다.

(2) 종군 위안문제와 일본여성

머릿말

조선인 종군위안부문제(「정신대」문제)는 우리들 일본여성에게도 실로 내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여성문제」의 근본적인 것이라는 면에서입니다. 둘째로는 천황·천황제국가가 범한 최대의 죄과이며면서도 최고 책임자였던 천황 히로히토를 비롯하여 역대 자민당 정부는 아무런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은채 방치해 왔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보면 우리들 일본인민의 도덕성을 극히 저하시켰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여성으로 이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하나는 권력에 의해 빼앗겨온 여성의 성을 되찾는 일이며 또 하나는 자기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극히 당연한 일을 함으로서 인간성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황군」과 종군위안부

「황군」은 아시다시피 천황의 군대라는 뜻이며 지난 시기 일본군의 호칭입니다. 「대일본제국헌법」(1889년 공포, 1946년 일본국헌법 공포까지 효력이 있었습니다)하의 천황은 실로 모든 통치권의 총괄자이며 육해군의 최고 지위에 놓여진 「대원수」였습니다. 모든 일본국민은 천황의 「신하」이며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강요 당했습니다. 국민은 거주나 주거의 자유도 제한되었고 사상, 언론, 신앙의 자유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일본제국 헌법속에

鈴木裕子

(스즈키 유우코: 일본여성사연구자)

있는 대원수천황의 「대권」을 인용해 봅시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성 및 상비병력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화합을 강구하며 제반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천황 대권이 어느만큼 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柳条湖사건(1931년 9월 18일 발발. 당시 일본 측 호칭은 「만주사변」)으로 시작하여 45년 8월 15일의 일본패전에 의해 종료한 「소화(昭和) 15년전쟁」은 이러한 거대한 통치권, 통수권을 갖고 있었던 소화천황 히로히토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추진된 전쟁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군위안부문제도 천황의 존재를 빼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천황의 「적자(赤子)」로 여겨졌던 병사들은 일선오랜의 업서 한장으로 가족의 곁을 떠나 그 광대한 중국대륙으로 보내졌으며 또 태평양전쟁 개시(41년 12월) 후에는 머나먼 남방전선에 까지 보내지면서 「천황폐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교육을 받고 싸움으로써 많은 병사들(그것도 하급병사)이 죽어 갔습니다.

당시 구호로 외친 「오족협화(五族協和)」 「동아신질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건설을 지어는 「팔굉일우(八紘一宇)」를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절에서 돌이켜 보았을 때 천황과 천황제관료, 천황제군부등 일본 지배층의 야망에 의한 침략전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오랫동안 천황숭배의 「황국만민교

육」을 받아들인 일본인민은 그러한 선동을 쉽게 받아들여 침략의 점령으로 변해갔습니다.

침략전쟁이라고는 차마 생각지도 못했던 병사들은 타국과 타민족을 짓밟고 그들의 토지와 집, 그리고 생명까지도 용서없이 빼앗았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외친 천황의 군대 즉 황군이라고 불려진 일본군의 실제 모습이며 그 잔혹한 병사들이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었다는 사실에 실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황군은 표면상으로는 충실하고 용감한 것으로 유명했지만 내부적인 실정은 상하의 계급차가 매우 엄격한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중층사회(中層社會)이며 동시에 그 저변에는 불만 불평이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자료①). 즉 군대는 차별이 중층화하고 있었던 그 당시 일본 사회의 축소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기보다 한 계급위의 上官이라도 상관의 명령은 천황의 명령과 다름없으며, 그 명령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인 이상 절대 복종을 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항변하거나 반항적 태도를 하면 용서없이 반죽임을 당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군대였기 때문에 병사의 불만 불평을 해소하고 적 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고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전쟁을 견디나가기 위한 조치로서 중군위안부 정책을 쓴 것입니다.

위안부들은 대의 명분적으로는 병사들의 「전」의 고양」을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병사들의 불만 불평의 「폭발」예방을 위해서 또 「성병 예방」 「강간 예방」을 위해서 「황군장병들에게 주어진 선물」(당시 육군군의소위 아소데즈오(麻生徹男)의 上申書 「화류병의 적극적예방법」(1939년 6월)의 한구절)이었던 것입니다(자료②).

2. 천황·천황제와 중군위안부, 그리고 전후의 「광광·결」(매춘부)

전쟁터에 끌려간 위안부들 중 일본인 여성의 경우는 창부(娼婦)가 많았습니다. 그녀들에게는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 「천황제하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기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의 일본패전으로 내무부(구내무부관료의 힘은 현재 보수정권하에서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가 즉시 행한 「조치」입니다.

패전으로 부터 3일이 지난 8월 18일, 내무성은 경보국장의 이름으로 「외국군주둔지의 위안 시설에 관한」건의 통첩을 냈습니다. 그것은 「성적위안」을 포함한 「외국주둔군 위안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정비요강」의 3,4항을 인용해 봅시다.

3. 경찰서장은 아래 영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설비의 급속한 보충을 기도한다.

성적위안시설

음식시설

오락장

4. 영업에 필요한 부녀자는 예기(藝妓), 공창(公娼), 사창(私娼), 여급(女給), 작부(酌婦) 상습 밀매음범자 등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종사시킨다.

오끼나와 전(1945년 ~6월)이 시작되기 전에 많은 조선인 중군위안부들이 오끼나와에 배치되는 황군과 함께 끌려 왔는데, 그것을 알게 된 현지 여자 청년단장은 군에 위안소설치를 취소하도록 당부하러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측으로부터 「이것은 현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득 당하여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후의 소위 「광광·결」(매춘부)들도 이것과 같은 수법으로 「일반부녀자」를 점령군으로 부터 보호한다고 하면서, 일본 지배층이 또다시 여성의 성을 희생시키고 점령군(미군)에게 비굴하게 굴며 실제로는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한 것입니다.

「일본내지」에서, 이러한 일이 추진되고 있었을 때 「외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廣田和子(히로다카즈코)의 「증언기록 중군위안부 간호부」(新人物往來社, 1975)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의 소련침전 그리고 일본의 패전으로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게 된 중국동북지역에서는 「황군」의 군의들이 중군간호부들에게 소련병사가 요구하면 즉각 「정조」를 제공하도록 압암리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성을 이처럼 유린하고도 수척스럽게 여기지 않는 일본 남성들과 지배층의 여성관의 근본에는 「명치」시대 이래의 가부장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부장제와 남권사회의 뿌리는 똑 같습니다. 그 뿌리에 천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부장제 = 남권사회의 정점에 있었던 인간이 즉 국가의 「대가부장」 「대군」으로 군림했던 소와(昭和) 천황 히로히토입니다.

만약 히로히토가 중군위안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면제 될 이유가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였던 그이가 신하들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히로히토는 한마디의 사죄도 안한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일본의 메스컴과 지식(문화)인들은 파렴치 하게도 그에게 「평화주의자 소와 천황」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보냈던 것입니다.

3. 중군위안부 문제는 여성문제의 「원점」

일본국가로 부터 성적 착취를 당했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조선의 중군위안부는 같은 선상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위안부중 많은 사람들이 창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가지고 「순진하지 않은 여자」로 취급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 일본여성들 측에서도 그녀들을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처럼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이 「중군위안부문제」를 자기들의 문제로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온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를 들어 제가 전공하는 여성사에서도 또 전후 일본 여성운동이나 평화운동 속에서도 그녀들의 역사는 전혀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권력에 의해 빼앗겨온 여성의 성을 우리의 것으로 되찾는 일을 항상 「원점」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녀들 창부는 가제도(家制度, 일본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공창제도(바로 말한다면 국가공인의 매매춘제도 또는 국가가 관리하는 매매춘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은 성적예속을 강요당하는 존재입니다. 여성을 남성의 성적종속물로 하기 위해서 여성은 무능력, 무교양하고 저임금 노동력일수록 좋았습니다.

여공이 되어 노동력을 싸게 파는 것도, 창부가 되어 문자 그대로 몸을 파는 것도, 결혼해서 경제력있는 남편에게 몸을 파는 것도, 그 형태는 달라도 여성이 놓여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가부장제를 보완하는 것이야말로 공창제도이며 「황군」에 의해서 변형된 공창제도가 중군위안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창제 = 중군위안부정책하에서 일본인 위안부도 조선인 위안부도 성적으로 착취 당한 희생자였습니다.

4. 조선인위안부는 성과 민족의 이중 착취를 받았다.

그렇지만 조선인위안부의 경우는 성적착취와 더불어 민족적 착취를 당했습니다. 착취라고 하기 보다 「민족말살」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요.

아시다시피 미나미 지로(南次郎) 육군대장의 조선총독시대(1936~42)는 「황민화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 「내선일체」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구호가 나돌았습니다. 「내선일체」란 조선인을 황민화, 일본인화, 동화 함으로써 민족을

서도 또 전
계서도 그너
다. 이것이

여성들의 성을
점"으로 생
니다.

가제도(家制)
가제도(家制)
가가 한리

강요당하
중속물로
하고 저임

도, 창부
결혼해
것도, 그
비슷합니

말그
공
이다. 이
위안부
한 희생

착취를

착취와
위라고
남겼지

장자의
이 강
(同仁)
선인
죽을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일본어)를
강요하고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황민화 정
책의 일환으로서 강제하여 정신적 민족말살을
도모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궁극」적인 민족말살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조선여성은 대상으로 한 일본국가의
「위안부」사냥의 실태는 조선인 강제연행의 어
느지방 동원 책임자였던 요시다세이지 (吉田清
治)의 저서 「나의 전쟁범죄」(三一書房, 1983년)
속에 적나라하게 서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조선민족으로서 성과 민
족의 두가지를 빼앗겨온 조선인 위안부들은 파
연 일본패전후(그녀들의 입장에서는 「조국해
방」후 입니다만) 무사하게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같은 전쟁피해자, 식민지배의 피해자인 동
포들은 아직도 중군위안부 문제를 입에 오르거
하는 것조차 「말세」라고 말할 정도로 유교도
덕, 「정조」관념이 강한 풍토라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녀들은 귀국
선을 타고 상륙을 눈앞에 하면서 투신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일본에 오신 윤정옥선생

님의 강연에서 들은 바 있습니다.

또 멀리 남방, 오키나와, 사할린 등지에 버
려진채(일본당국과 군은 패전후 그녀들의 귀국에
성의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향 땅을 밟지 못
하고 돌아가신 분, 나이 먹고 살아계시는 분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 여성들은 이러
한 일본국가가 범한 명백한 전쟁범죄를 제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일본인들이 경제동물(economic animal)이라
고 불려진지 오래 됩니다만 만약 일본인이 국
가가 범한 죄과를 계속 모르는 채 한다면, 우
리 일본인은 인간으로서의 감성도 도덕도 영원
히 상실한 국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일본인이 중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여
하는 것은 오랫동안 상실해왔던 인간성을 회복
하는 일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성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미 얘기 드렸기 때문에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
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들은 서로의 입장에서 충
분하고 솔직한 대화를 해야하고, 또 그것을 계
기로 하여 일본여성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감
사합니다. ■

第12軍第10兵站病院陸軍軍医少尉・麻生修男
花柳病ノ積極的予防法(一九三九年六月二六日付)

去年一月小宮上海郊外勤務中、一日命令ニヨリ、
新ニ奥地へ進出スル過中、食糧ヲテヒタリ、コノ時、

被檢者ハ半島
テ、半島人、
シモ、内地人、
甚ダ如何ハシ
過中ニハ四十
淫姦素ヲ教

齡且ツ初心ナ
ソハ後者ノ内
補充トモ言フ
一般ニ娼婦ノ

ヘル事カ宜西

へ送り込マレル
某地ニ檢徴
術ノ療養ヲ有
シアバズレ女ノ
將兵へ贈リ
如何ニ檢徴ヲ
一應戰地へ送
充分ニ淘汰ヲ
キ女ヲ戰地へ
ト言フ可シ

公開 當時수첩 宋卜園公 宋公

이제부터는... (Text continues with a list of names and dates, including 宋公, 宋卜園, etc.)



宋公 (Caption text in Korean and Japanese)

팔렘방 2곳서 외박군인 상대

【서울 26日電】 팔렘방 2곳에서 외박군인 상대... (Main article text about military personnel and local residents in Palembang)

印尼에도挺身隊 6명있었다

한인영 2.1.17

恨 많은 얘기 끝 함께 오열 아직 생생

【서울 26日電】 팔렘방 2곳에서 외박군인 상대... (Continuation of the article about military personnel and local residents in Palembang)

II. '정신대' 원혼서린 발자취 취재기

윤정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필자의 말〉

필자가 정신대의 발자취를 찾아 그들의 비참한 과거를 밝히 보려는 데에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43년 12월 내가 이화여자전문대학교 1학년때 일제가 한반도 각지에서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여성들을 마구 정신대로 끌어가는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서둘러 결혼하기 위해 자퇴를 하기 시작하자 당황한 학교당국은 "학교에서는 책임지고 말하는데 너희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들은 국민 총동원령에 응한다는 서식에 지장을 찍어야 했다.

나는 부모님의 권고에 따라 학교를 자퇴해 정신대를 모면했지만 그 무렵 내 또래의 많은 처녀들이 일제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에 일어난 이 끔찍한 일이 자칫하면 21세기까지 이어져, 제2차 세계대전조차 들은 적이 없는 세대에게로 옮겨갈 것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 금할 수 없다. 나는 이 일만은 잊어버려서는 안되며,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야 한다는 믿음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만일 일본이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을 왜, 어떻게, 얼마나 끌고갔으며, 무슨 짓을 했는지, 전쟁 뒤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지를 진작 밝히고 용감했더라면 오늘날처럼 기기촌에서 또는 관광지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서는 한국의 매춘여성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끼나와와 그밖의 여러 곳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우리의 여성들이 전후연합군 위안부로 고스란히 넘어간 경우를 발견하고 이런 느낌은 더욱 절실했다.

이같은 1980년 12월, 1988년 2월과 8월, 그리고 지난해 7월 등 네차례에 걸쳐 일본 홋카이도와 오끼나와, 타이 핫차이, 파푸아뉴기니-그러니까 우리 정신대의 피눈물 자국을 따라 현지 신문등 옛자료를 뒤지고 관계자들의 증언을 모아 작성한 기록이다.

① 홋카이도

일본 오끼나와의 나하 남쪽에 있는 이토만시의 평화기념공원에는 일제 때 징용간 한국 젊은이를 위한 위령탑이 있고 이은상의 만가와 조사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민족의 처절한 고난을 짊어졌던 '정신대'라는 이름의 위안부

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다.

위안부 문제가 왜 이렇게 동한시되고 있는가? 첫째 이유는 우리쪽의 기록이 없기 때문일 것이고, 두번째로는 정신대로 나간 여성이 거의 서민층 출신인 데다가 여자가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외면당한 것이 아닌가 생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92.1.1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문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길 11-1
전화: 02-771-1111
팩스: 02-771-1112

각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상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있는 자료도 폐기했을 뿐 아니라 당시 장교였던 요시다 세이지를 제외하고는 정신대 연행에 관계했던 관리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재작년 8월 두번째로 일본 홋카이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일본 주민과 징용갔다가 살아남은 한국 남성 그리고 징용병의 아내(한국여성)들의 증언, 당시의 기록 등을 통해서 한국의 어린딸들이 이미 1910년 무렵에 일본으로 갔다가 속아서 일본 노동자와 한국노동자를 상대로 매춘을 강요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개항 이후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축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에도시대부터 시작한 홋카이도 개척, 러시아 전쟁에 이겨서 따낸 이권인 연해주지방의 벌목, 그 연안의 어획, 그 시대의 에너지원인 채탄동에 필요한 노동력이 일본 남성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합병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쌀증산계획과 함께 중국침략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입국을 엄히 막던 1899년의 칙령을 폐지하였다.

〈자치연 샷포로〉에 의하면 1939년의 한국인 강제연행수는 일본 전역에 5만2천1백20명인데 1945년엔 1백51만1백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 한국 여성들이 갔는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다. 그러나 '홋카이도 개척수난자 조사위원회'의 위원중 한 사람인 가타다 세이지는 그들이 왔었으리라는 글은 심증을 가지고 있었다.

재작년 여름 샷포로에서 만난 불고기집 '신생식당' 주인 김달선(68, 16세 징용에 끌려간 경북 상주 출신)씨와 나이에의 불고기집 '남대문'의

여주인 이중희(70, 19세 때 징용간 남편 따라 독일)씨의 증언, 가타다의 조사, 〈자치연 샷포로〉와 '역사교육자협의회 마쓰마에 서클'의 출판물, 하코다테 YWCA에서 만난 국교교사 아사리 마사요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홋카이도로 끌려간 한국 여성의 상태는 대략 이러했다.

한국 여성들은 당시 조선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배불리 먹고 돈 벌 수 있다는 일본인의 말을 믿고, 한 부류는 동해를 건너 홋카이도의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항구에 도착했고, 또 한 부류는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 방직공장 직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지옥같은 오사카 방직공장을 벗어나려다 또다시 속아서 매춘굴로 빠져들게 되었다.

아사리가 제공한 당시 발행된 〈하코다테신문〉〈하코다테 니치니치〉등에 의하면 1920년에 오사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여성이 하코다테로 온 기록이 있다. 1921년에는 여성 6명, 남성 1백명이 하코다테에 있었고 한국 요리점이 한 군데 있었다.

한국 여성들은 '슈생야' (노동중개인)에게 속아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슈생야는 여성들을 자기집에 두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게 외부와 차단시키고는 잘 먹이고 시내를 구경시킨 뒤 돈을 돌짜 받고 유곽에 팔아 버렸다고 한다. 이 무렵에 오사카나 홋카이도에 간 여성들은 대부분 15세에서 20세 정도였다.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은 이 덧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자 죽음을 택하였다. 혼자 죽기도 했고 집단적으로도 많이 죽었다.

그들이 죽음의 길로 택한 곳이 '자살의 명소'가 되어버린 '다치마쓰 미사키'라는 절벽이다. 하코다테 YWCA 소개로 필자의 안내를 맡아준 이케다 하루오와 함께 좁은 오르막길을 지나 다다른 절벽은 험하고 사나웠다.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휩쓸려 바위가 널려 있었다. 그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면 살아남을 길은 없어 보였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하고 울부짖는 소리로 들린다고 이케다가 전해주었다.

아사리가 보여준 1923년 12월 18일자 <하코다테신문>에는 “가엾은 조선 미인의 죽음, 17세”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죽은 한국 여성에 관한 기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신문에는 “일본인들의 심한 학대에 못 견디 항의하던 여인들이 옷까지 벗겨 거리로 내쫓겼다”라는 기사도 있었다.

1935년 6월 20일자에는 “오전 2시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반쯤 옷을 벗은 여인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순사가 발견”이란 기사도 보인다. 이방수(20)라는 이 여자는 ‘정덕수’라는 요리집에 있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났어도 약도 쓰지 못해 정신착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1941년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끌어갔다. 이중에 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살했고 신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드디어 1943년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의 자살을 기사화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1940년쯤부터는 무단가출을 한 여성들을 찾는 기사가 구인광고란을 채우기 시작했다. 포주들은 머리모양, 입고 있는 옷을 묘사하여 도망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

1940년 1월 7일자 <오타루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유우바리 탄광에는 7백4명의 반도인 광부가 있다. 멀리 타항에서 극복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전사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들이 오기 전부터 일을 추진했으나 금번 협화로 근처에 3동을 개설하고 조선 향토요리점을 경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자치연 삿포로> 38쪽의 “삿포로에서의 조선 요리점의 변화”라는 대목을 보면 1920년대에 처음부터 조선노동자 상대의 위안부를 둔 조선

요리점을 개설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은 또한 일본 여성에게 실시됐던 공창제도를 한국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서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매춘을 강요당한 한국여성들이 인권, 임금, 위생과 후생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1930년에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본래 삿포로의 조선요리집은 조선노동자를 위해 5-6곳 세워진 것인데, 일본 남성들이 한국 여성을 좋아하여 이곳이 곧 일본인 상대의 요리점으로 변해버렸다.

1935년계의 경찰발표에 의하면 이런 곳이 67곳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백곳이 넘었을 것이라고 이 기록은 말하고 있다.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은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에서 온 여성들로 일본말을 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조선사람에게는 절대로 일본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 여성들이 있는 요리집이 몰려 있던 곳은 도요히라라는 거리에 한정되었고 하코다테와 마찬가지로 큰 대문이 초입에 있고 그 안에 준비하게 요리집이 서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다이몽도오리’(대문통)라 하고 조선요리집이 몰려 있는 곳을 ‘다이몽노 조선바’라고 했다고 한다.

조선 여성들은 일본 남성들에게 환영을 받았던 흔적이 짙다. 1935년 1월 27일 <츠키이도 타임스>에 의하면 “청년층을 즐겁게는 조선녀, 단호히 박멸할 것을 기도, 삿포르경찰서의 강경한 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들이 왜 그곳에 있는지는 묻지 않고 감시를 강화했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해가면서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박멸’하려 애썼다. 삿포르의 한국요리점의 이름을 한국적인 것, 예를들어 ‘도라지’라든가 ‘아리랑’ 같은 이름을 못쓰게 하고 한국 여성이 입

고있던 치마와 저고리도 강제로 일본옷으로 바뀌게 했다.

가타다와 아사리는 홋카이도 개척사를 편집하다 보니 한국 노동자의 비참한 자료가 줄줄이 나와서 이제는 한국인 징용관계와 매춘상황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비행장의 바닥에는 한국인의 시체가 깔려있고 철도의 침목 하나하나가 한국의 징용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다.

그리고 다치마쓰 미시키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한국 여성의 원혼의 소리로 들을 수 밖에 없는 하코다테 주민들은 홋카이도 개척에 해아릴 수 없이 많은 한국의 남녀가 희생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② 오키나와

오키나와는 메이지시대에 사쓰마 번주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독립된 류큐 왕국이었다. 정복된 뒤는 사쓰마번과 차별되어 통치를 받았다.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뒤에는 미군 밑에 있었으나 경제사정이 일본 통치때보다 더 힘들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3군을 오키나와에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그 섬을 일본으로 복귀시켰다.

필자가 오키나와에서 만난 섬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게 당한 배신감, 굴욕감, 억울함을 아직도 삭이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이 한국 사람인 필자에게 호감을 갖게 한 모양이었고 위안부와 징용부에 대해 동정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 인권운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젊은이들 중에는 오키나와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독립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일본인과 다른 오키나와인이고 메이지시대까지 오키나와는 왕국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다.

1980년에 이어 두번째 1988년 2월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김혜원, 김신실 회원과 함께였다. 1980년대 만년 배봉기(75) 할머니에게서 좀더 이야기를 듣고, 도카시키텍에 안치되어 있다는 '하루에'라는 위안부의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일이 여의치 않으면 하루에의 유골이 실제로 있는지, 있을 경우 다음번에 인계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둘 계획이었다.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본격적으로 끌려가기 시작한 것은 일본이 중국 침략을 결정한 1937년부터로 추정된다. 관동군의 만주주둔이 장기화되고 중국 본토로 많은 일본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국 여성 연행을 생각해낸 것이었다.

본래 일본군은 일본 매춘여성을 위안부로 삼고 있었으나 군대 안에 성병이 퍼졌고, 중국여성을 강간, 윤간하거나 접촉하다 성병이 옮기도 했다. 또 중국 여성 가운데는 첩자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성병이 없는 일본 미혼녀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안이 쇠민지 한국의 17~20살의 미혼여성을 데려가는 일이었다. 일본은 대부분 유교를 믿는 한국 가정이 딸들에게 엄하게 정조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민족 쇠망책의 하나로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쓴 것이었다. 민족을 쇠파시키기 위해서는 그 민족의 기반이 되는 가정, 그 가정의 기둥이 되는 여성을 파괴시키는 일이 지름길이라고 착안한 것이라고 재일동포 김일면씨는 그의 책〈천왕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년)에서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성은 남성의 성의 위안물이라고 생각하는 여성 멸시 사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종군 위안부 정책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사상과 남성 위주의 여성멸시사상이 낳은 극책이라 할 수 있

었다.

위안부의 수요는 '니쿠이치'라 해서 일본군인 29명에 한국여성 1명으로 계산해냈다. 그러나 일본 패전 직전에는 위안부 한명이 하루에 일본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38년 무렵에는 군이 직명하는 '육군오락소'를 두어 위안부를 감독했으나 안팎으로 물의를 빚자 일본인(더러 한국인도 끼어 있었다) 포주에게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위안소를 방문하는 군인에게는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중 몇가지를 소개하면 위안부와 연애하지 말것, 위안소에 들어가서 30분(어떤곳은 40분)이상 있지 말것, 콘돔을 반드시 사용할 것, 위안부는 공동소유라는 생각을 철저히 할것 등이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공동연소 같은 물건이었다.

오끼나와 나하에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는 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필자 일행이 나하시의 매춘여성 담당관리인 다카자토 스즈요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을때는 먼저 살던 집보다 나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파트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할머니!"하고 불러도 다카자토가 "뽕기상!"하고 불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몸도 성치 않고 여전히 인간 기피증에 걸려 있어 조충련계의 김이라는 여성의 요청에만 응해준다고 했다. 할머니의 과거를 생각하면 1980년 11월에 나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할 뿐이었다.

배봉기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이북땅 홍남이다. 가와다 후미코의 <빨간 기와지붕의 집> (1987년)이라는 논픽션을 보면 1943년 할머니가 29살때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지는 곳"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어떤 여자소개인을 따라 나섰다고 했다.

우리는 1988년 2월 19일 오끼나와 나하에서 서쪽으로 55km지점에 있는 도카시키키와 자마미

섬을 찾아갔다. 하루에와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곳이 도카시키키섬이다. 이 섬에서 우리는 다카자토의 소개로 오끼나와의 주민 미야기 하쓰에(66.여)와 그의 이웃 주민 2명, 도카시키키섬의 여관 '청구시소'의 주인 고히구라 세키, 그의 어머니,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가 살았던 '빨간 기와지붕의 집'인의 딸 나카무라 하쓰코(62)등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 1944년 9월에 일본군이 도카시키키, 자마미, 아카섬에 자리를 잡았고, 10월 10일에는 연합군이 무섭게 공습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1944년 11월에 나하에 도착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바나나가 떨어진다는 낙원은 간데 없고, 폭격으로 건물들은 파괴되고 모두 피난가 아무도 없는 폐허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뒤 다시 배에 실려 도카시키키, 자마미, 아카섬에 7명씩 배치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도카시키키의 여자청년단은 일본군에 찾아가 위안소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안소가 이 고장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쉽게 설득당했다.

위안소는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오끼나와의 돈있는 사람들이 주르 사는 빨간 기와지붕의 좋은 집에 마련되었다. 배봉기 할머니가 배치된 도카시키키섬의 집주인은 나카무라였다. 그의 딸 하쓰코는 한국여성들은 피부가 희고 고우며 키가 늘씬했고 그들의 이름은 기루마루(24살), 하루에와 가즈코(각각 23살), 스즈란(20살), 밋찬과 아이코(각각 16살) 그리고 아키코(30살 배봉기)....라고 기억하고 있었다. 온 섬이 칙칙한 군복과 몸뻘한을 입고 있는데 비해 그들은 연분홍, 연두, 연하늘색 기모노를 입고 있어 유난히 화려해 보였다. 더구나 10대, 20대의 젊은 여성들이라 '스타일'이 좋았다고 했다. 29살에 끌려온 배봉기 할머니는 길에서 한 해를 보낸 셈이라 이곳에 닿을때는 30살이 되어 나이든 편이었다. 제일 나이 어린 밋

찬과 아이코는 늘상 우는 빛이었으며, 폭력이 심해지자 모두들 아리랑을 부르며 울었고, 그 중에서 기루마루는 술을 마시며 울었다.

필자는 하쓰코에게 이 여성들이 속아서 또는 강제로 끌려온 여성들인 것을 섬사람들이 알고 있었는지와 하루에 대해 물었다. 그는 섬 사람들도 다 그들이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하루에는 교양이 있어 보였으며 일본말도 조금 했다고 했다.

야마다니 데쓰오의 <오끼나와의 할머니>(1979년)에 의하면 결혼해서 아기가 있는 하루에는 눈을 딱 감고 군대식당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려고 돌아가려고 아기를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나선 여성이었다. 하루에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는지 필자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루에를 놓고 도카시키섬에 주둔한 장교와 위안부를 인솔해 온 군인 사이에 정갈전이 벌어졌는데 장교가 이겼다고 한다. 어쩌다 틈이 나면 하루에는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아기생각을 하며 정신대가 이런 일인줄 몰랐다면 놀 울었다고 했다.

연합군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져 1945년 3월 23일과 24일의 공습으로 무서웠다. 일본군은 섬 사람들에게 산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했다. 이 공습으로 위안소였던 빨간 지붕의 집이 폭격을 당했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병들에게 수도 없이 참호를 파게하고 식량이 달리자 먹을 것을 훔치게 했다.

아카섬 주민들에 의하면 이 섬에 끌려왔다가 한국 징용부 가운데 10명이 1967년에 이곳을 찾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동료가 일본군에게 집단학살을 당했다고 기억되는 지점, 섬 사람들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파보았다. 과연 그곳에서 사람의 뼈가 많이 나왔다. 이 장면은 그곳 텔레비전에 방영되었다. 한국 징용부들은 뼈를 파낸 곳에 태극기를 꽂아 놓고 유골을 본국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이

다.

일본군은 한국 징용부도, 오끼나와 사람들도 믿지 못했던 모양이었다. 자기들이 수상적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하거나 모국어를 쓰는 사람에겐 폭력을 가하고 서슴없이 죽였다는 것이다.

하루에는 1945년 3월 23일 대공습 때 부상당해 산속 참호로 옮겨졌으나 죽었다. 밋찬과 아이코도 죽었다. 징용부도 오끼나와 사람들도 일본 군인도 죽고 부상했다. 아수라장 속에서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생겼다. 고후구라 겐기는 "일본 군인은 참호속에 피난해 있는 오끼나와 사람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갔다"고 하며 "더러운 것이 일본 군인"이라고 치를 떨었다.

도카시키섬의 위안부 중에서는 배봉기 할머니와 아이코만 살아 남았다. 징용부 1백50명 중에서는 몇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도카시키섬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에는 "청년의 집"이 있고 그 못 미처 오른쪽 오솔길로 들어가면 '백옥담'이 서있다. 1962년 3월 27일에 태평양전쟁 때 죽은 희생자들을 안치하고 세운 것이다.

야마다니의 <오끼나와의 할머니>에 의하면 도카시키섬 사람들은 하루에의 고향사람들이 찾아오면 돌려주려고 그의 유골을 이 담에 안치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담에 새겨진 명단에서 하루에라는 이름을 찾지 못했고 야루소라는 동사무소에 가 보았으나 하루에뿐 아니라 위안부나 징용부의 유골이 따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 담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중에 과연 위안부와 징용부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자 일본군과 함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끼나와 본토에 다시 모인 위안부는 그곳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미군 상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할머니는 미군이 상륙할 때 죽는 줄만 알고 절망감에 빠졌었다고 한다. 그 이전에 폭격속에서 간호일 하라, 밥 지으라, 빨래하라, 먹을 것을 찾으라 산을 해매라, 탄약 나르라, 밤에는 '위안' 하라 일본군에 혹사당해 몸이 기진맥진했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다. 그는 일본군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 일본이 이겨야 자기도 살 수 있고 미군이 상륙하면 다 끔찍하게 죽이는 줄 알았다고 했다.

나하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 그 도시의 변화가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만세 부르듯이 두팔을 쳐들어 "나는 조선 사람ियो! 나는 조선사람ियो!"를 외쳤다는 것이다. 그는 위안부였는데 정신 이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중 어떻게 뛰쳐나와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전후에도 살아남은 대부분의 위안부들은 한국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들이 왜 끌려와서 그런 인간이하의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몰랐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근원적인 자아 속에 숨쉬고 있던 '조선인'으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고개를 쳐들고 당당하게 살고 싶었던 바람을 이루지 못한 한 그리고 제정신 가지고는 말을 못했던 울분을 쏟아 냈던 것은 아니었는지...

③ 타이 핫차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전쟁이라고 불렀다.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는 뜻일 것이다. 아시아에서 구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함께 번영하게 한다는 것이다.

공영권의 외곽선은 1942년 2월 18일 일본대본영 정부연락회의에서 결정된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대동아의 지역'이라는 지도에 따르면 중국, 버마, 수마트라, 자바, 뉴기니, 솔로몬, 마셜, 중부 태평양섬, 일본등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여러나라를 모조리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고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구미의 손에서 빼내어 자기들 지배 아래 두려고 획책했다.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전선이 넓어졌다. 군대의 사기와 점령지의 치안유지를 위해 일본군은 이 모든 전선에 위안부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육군성은 "성전을 위해 대의친(조선 민족을 가리킴)을 멸할 시책이다"라고 부기한 극비통첩을 내어 조선인 여자를 위안부로 동원했다. 위안주의 나이를 17살에서 20살의 미혼여성으로 규정했던 일본군은 나이도, 미혼의 조건도 무시했다.

요시다 세이지는 <나의 전쟁범죄>(1983년)라는 저서 '제3화 제주도의 위안부사냥'이라는 장에서 노무보국회 시모노세키지부 동원부장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위안부를 '사냥'했냐를 고백하고 있다. 그는 제주시 주둔 일본 육군의 협력으로 11명의 보병과 군용트럭 2대를 얻었다.

1943년 5월, 이 무렵 조선 사람들은 일본군에 끌려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요시다의 징용대는 댕치음 갖을 만드는 집을 습격해서 20~30명의 여자 중에서 8명을 끌어냈다.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자 건장한 조선남자 4~5명이 길을 막았다. 칼을 쏜 총으로 막아도 남자들은 손을 쳐들고 조선말로 필사적으로 항의해 왔다. 대원들이 총검을 들이댔을 때 그들은 도망쳤다. "아이고! 아이고!"하며 울부짖는 여성들을 트럭에 밀어넣었다. 트럭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요시다의 징용대장의 지시에 따라 대원들이 방금 사냥한 여성들과 놀게 했다.

성산포 단추공장에서의 일이다. 몹시 주저하는 사장에게 호통을 치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여공은 30명 가량됐다. 징용대가 "작업정지!"하고 외치자 여성들은 비명을 질렀다. 쓸만한 여성을 고르는데 한 노파가 대원 팔에 매

달렸다. 옆에 있던 다른 대원이 노파가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움켜쥐고 얼굴을 씻히고 땀을 닦았다. 임신으로 배가 부른 여성은 치마를 걷어올리고 속옷 밑으로 배를 들여다 보았다.

나이는 여공이 요시다에게 달려와 "조선여자를 어찌려는 거예요. 조선사람도 일본신민이잖아요!" 하고 일본말로 대들었다. 요시다는 "전쟁때문이야. 방해말아!" 하고 호통을 쳤고 그 여공은 조선말로 울부짖으며 계속 요시다에게 달려들었다. 요시다는 그를 밀쳤고 한 정용대원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쳤다. 이 공장에서의 '수확'은 16명.

문옆에 지켜 서 있던 사장은 말없이 돌아갔다. 별을 보며 부대본부에 도착했을때 군인들은 환성을 울리며 여성들을 반겼다.

중일전쟁 전후해서는 속여서, 태평양전쟁이 확대되면서는 노골적으로 납치해서 중국, 타이, 버마, 태평양의 깊은 섬으로 끌고갔다.

1944년 1월, 박경도라는 조선 사람은 중국의 한커우(한구)에 있는 무한루라는 유곽을 사서 위안소를 차리기로 했다. 조선에 와서 10명을 모아 한커우로 가는 도중 미군 폭격을 맞아 11명이 다 죽었다고 한다.

정신대로 끌려가던 여성들이 만주로 가는 도중 기차에서 뛰어내려 죽고, 태평양의 섬으로 가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성들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다고 한다.

필자가 아는 한 지금까지 살아남은 사람중 자신이 위안부였다는 사실을 세상에 말한 사람은 오키나와 나하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이 핫차이에 있는 유유타(70)할머니 뿐이다. 유유타 할머니는 신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름을 쓰고 있다.

필자는 1988년 8월 홋카이도에 들러 유유타 할머니를 찾아 타이에 갔다.

방콕에 사는 필자의 친척이 주선헌준 안내인 총탁사의 딸딸이를 타고 여성공무원 한사람과

함께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문은 잠겨 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웃 주민이 아마 식당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름은 '대중다실'. 식당 안은 연기로 그을려 새까맣고, 큰 불단이 입구와 부엌 가까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었다. 오른쪽 벽에는 유유타 할머니의 남편 중국인 첸차오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자기 집안이 은행가라고 사진을 설명하며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는 깨끗하고 건강해 보였고 할아버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거동이 약간 굼뻐보였다. 사람이 점잖고 양순해 보였다. 유유타 할머니가 나를 고향사람이라고 소개하자 코피마시던 식당손님들이 나를 환영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일하던 첸차오의 둘째부인을 소개하고 그 부인의 소산인 아들들도 소개해주었다. 말수가 적은 둘째부인은 잘 생긴 50대초반의 여성이었다. 식당은 온 가족이 힘을 모아 운영하는 모양이었다.

필자는 커피를 대접받았는데 그 맛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할머니는 한국말을 전부 잊어버렸다고 했다. 지금은 타이말과 중국말만을 한다는 것이다. 1921년 8월 15일생으로 처녀 때는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치렁치렁 했는데 타이에 와서 잘랐다고 했다.

할머니는 줄담배를 피웠다. 그리고 배봉기 할머니와 비슷하게 결벽증이 있는 듯싶었다. 어디를 가나 담배와 유난히 최고 큰 손수건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겼다.

일본 출발 직전 도쿄에서 만난(아사히 신문)의 기자 마쓰이 야요리가 말한 대로 할머니 집 거실정면에는 작은 태극기와 할머니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다. 필자가 반기자 '태극기' '어머니'를 가리키기도 했으며, 남편을 따라 중국 국적을 가지게 됐다고 여권을 보여주기도 했다.

할머니가 마음을 열어놓은 듯 싶어 그에게

직접 우리말로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눌러잡시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와 손수건과 두루마리 화장지를 챙겼다. 우리 일행은 교외로 나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고급식당에서 푸짐한 타이요리를 즐겼다.

필자는 유유타 할머니가 일본 여성인 마쓰이에게는 위안부시절의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필자에게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결코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타이로 떠나기 전에 필자는 한국의 텔레비전인지 신문인지가 할머니와의 약속을 어기고 원치 않은 부분을 보도하여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들었다.

최초로 정신대 위안부에 대해 글을 쓴 센다가코는 필자에게 유유타가 만나주지 않거나 혹은 만나주더라도 ‘중군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바 있었다. 이런 예비지식이 있어서 필자 역시 할머니가 얘기해 주리라는 기대는 별로 가지지 않았다. 다만 그를 만나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필자가 만나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자신의 사생활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22살에 나라 떠난 사람이 한국말을 잊어버릴 리가 없고 “눌러잡시다”라고 한 발음과 억양은 한국 사람의 완전한 한국말이었다.

마쓰이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유유타 할머니는 경상도 출신으로 위안부가 되기전에 결혼했었다. 친정도 가난하고 시집도 너무 가난한 데다가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하여 할머니는 도망쳐 나와 부산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우물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려 하는데 일본 순사 4, 5명이 “잠깐만”하고 소리쳤다. 어찌나 놀랐는지 동이를 떨구는 바람에 한 순사의 옷을 적셨다. 발로 차이고 얻어맞고 결국 끌려갔다.

1942년 가을, 할머니가 22살때 일이었다.

그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군인들의

팔래를 하고, 막사를 청소하고, 탄약을 날라야 했고, 또 밤이면 군인들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마쓰이는 1984년 11월 2일자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

“아침부터 몇십명을 상대해야 하는 날도 있었다.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감독에게 매를 맞고 머리를 잡아채이고 옷이 반쯤 벗겨진 채로 이러저리 끌려다녔다. 인간 이하의 생활이었다.”

일본의 패전을 알았을 때 조선 위안부들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고국의 땅을 밟을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다. 일년 뒤 타이로 건너와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필자가 이를 동안 본 할머니는 강하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할머니는 마쓰이에게 “휴향물에서 자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곳을 피우는 연꽃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 연화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연화각은 할머니 식당 바로 옆에 있는 절이다.

아이를 낳지 못한 할머니는 남편에게 다른 부인을 맞도록 하여 지금까지 한지봉밀에서 화목하게 살고 있다.

아들을 셋이나 낳고 전처를 각듯이 형님으로 모시는 둘째부인도 착한 사람이라니와 아들을 낳아준 젊은 여성을 친동생처럼 한집에서 데리고 사는 할머니도 보통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한국 매스컴에 대한 거부감도 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마쓰이에게 “군인은 나쁘지만 한국사람, 일본사람, 타이사람, 중국사람 모두 친구”라고 했다는 것이다. 과연 할머니는 시동생 가족과 또 다른 친척들과도 한핏줄을 나눈 가족 같이 살고 있었다.

필자는 지옥을 이기고 나와 본래 쓰고 있던

접질을 깨고 생명을 사랑하고 인간간계를 소중히 여기는, 강한 여성을 만난 느낌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사는 유유타 할머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오키나와에서 인간 기피증에 걸려 폐쇄적으로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키나와를 떠나야 하는 1988년 2월 하순 어느 일요일 아침 필자는 일행과 같이 허탕칠 셈치고 배봉기 할머니를 다시 찾았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며 할머니를 불렀다. 안에서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다. 배봉기 할머니였다. 우리 자신을 소개하며 할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는 귀찮다고 가라고 손짓을 했다. 현관의 신발장에 한 손을 얹고 서 있는 할머니는 어지러운 듯 몸이 앞뒤로 흔들흔들었다.

"할머니 그냥 갈게요. 이것은 한국에서 가져온 인삼차예요. 받아주세요."

"필요 없어" 할머니는 손짓으로 우리에게 가라고 했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하고 필자는 얼른 뒤로 물러났다. 우리가 지체하면 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되어서였다.

필자는 할머니가 문을 닫자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가와다의 책을 보면 할머니는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한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오키나와를 한없이 헤맸다고 한다. 그뒤 나하에 자리를 잡자 그의 지옥같은 과거가 세상에 알려지고 이렇게 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오는 사람마다 꿈에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캐물곤 하니 배봉기 할머니가 심신이 병든 것도, 우리를 그토록 피하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배봉기 할머니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유유타 할머니도 보았다.

그러나 유유타 할머니의 풀담배나 필요 이상 깨끗하려고 신경을 쓰는 증상은 과거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후유증인 듯 싶었다.

아무리 자료를 모으고 증언을 들어도 그들이 겪은 고통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런지 모른다.

④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에 도착한 것은 1989년 2월 21일이었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의공군기지가 있었고 공군 7만명과 육군 14만명, 그리고 한국과 일본 위안부가 많았다는 뉴브리튼섬의 라바울에 가기 위해서였다. 적도 밀이라 어찌나 더운지 화장지로 땀을 닦으면 물속에서 건져낸 듯 종이 가 젖어버렸다.

택시기사에게 속고 바가지를 술하게 쓰는 등 온갖 경험을 하며 라바울에 도착한것이 2월24일. 25일에는 알버트 부르아 목사의 안내로 라바울과 근처 코코포를 돌아보았다.

상상했던 것보다 마을은 작았고 전쟁은 처참했던 모양이었다. 마을 한 가운데있는 우체국 앞과 라바울 연합교회 사무실 앞 그리고 현재 야구장으로 쓰이고있는 곳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뉴기니 여성단체가 전쟁(1942~1945) 중에 죽은 일반시민을 위해 세운 기념비가 있었다.

마을 안의 라바울 전쟁박물관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썼던 대포 등 녹슨 쇠불이가 마당에 진열되어 있었다. 표지판은 영어로 써 있는데 유독 '라바울정부전립'이라는 글자의 '라바울'은 일본문자로, '정부전립'은 한자로 써여 있었다.

마을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위에는 일본 해군지휘소가 있어 대포, 소형 비행기 그리고 쇠불이 따위가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도 표지판이 있었는데 '해군항공부대지휘소'는 한자와 영자로 쓰여 있고, '라바울 정부전립'은 영자, 일본어 한자로 쓰여 있었다.

라바울 전쟁박물관에도, 이곳에도 누가 그

자리에서 싸웠는지, 전시되어 있는 무기가 누구의 것이었는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상했다. 그러면서 '라바울 정부전립'의 '라바울'이 파푸아뉴기니어가 아닌 일본어로 표시되어있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일본이 전후에 세웠음이 분명한 데도 이것을 라바울 정부가 세웠다고 표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았다. 이곳에서 침략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것만이 짐작될 뿐이었다.

부근의 산 밑에는 죽은 일본군인을 위한 위령탑이 있었다. 정면 오른쪽에는 일본군인이 아니고 '전사 일본인의 비라는 비석이 있고 그 옆에는 '세계인류가 평화롭기를' 이라고 쓰인 나무기둥이 서 있었다. 라바울에서 꽤 떨어진 곳에는 기가막히게 잘 가꾸어진 연합군묘지가 있는데 영국연방이 관리하고 있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파푸아뉴기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었고 라바울의 인구는 1만명이었다. 지금은 독립국이 되었지만 아직도 라바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은행은 있어도 파푸아뉴기니 은행은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현지주민의 희생을 애도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필자는 독일 다카우의 유대인 수용소에서 독일이 전쟁동안에 저지른 죄과에 대해 솔직하게 시인하고 통회하고 있는 것은 보았다. 필자가 라바울에서 본 전후의 일본의 태도는 그 뒤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몰라도 독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었다.

2월 24일, 호텔 프런트에 제2차 세계대전때 이곳에 있었던 노인을 만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튿날 호텔 직원은 필자가 찾는 사람이 오후 3시에 찾아올 것이라고 전해주었다. 그는 부르나이라는 사람으로 일본말을 한다고 했다.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랐다.

그는 5시경에야 겨우 나타났다. 키가 작으나 다부진 체격을 한 50대 남성이었다. 일본군인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일본에서 온 사람 5명을 공항까지 바다로 주느라고 했었다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패전 뒤 45년간 해마다 와서 자기나라 전사자의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부르나이의 안내를 받아 딸딸이를 타고 위안부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장소를 둘러보았다. 그는 8살 때 아버지와 함께 막사를 청소하고 군인들의 팔래울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던 사람이다. 자기 눈으로 위안부들을 직접 보았고 그들의 생활과 일본군인들과의 관계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 당시에 배운 일본말을 의사소통이 될 만큼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다.

해군사령부는 지금 변화가라고 말할 수 있는 중앙에 자리잡고 있었고 위안소는 바로 옆에 준비하게 서 있었다고 한다.

김일면씨가 지은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76년)에 따르면 코코포에 있었던 육군 기지에는 군인 수가 해군의 급절이 되었으나 위안부의 수는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해군과는 사이가 나쁜지라 육군은 자기들에게 배당된 위안부만으로 자체내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같은 책 11장 '라바울의 장병과 연인'에는 "총알과 같은 속도로 위안부가 도착한다"라고 하여 위안부의 공급이 신속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일본군은 전쟁터에서 위안부가 총알만큼이나 절대 필요했던 모양이다.

부르나이는 재미있는 과거를 회상하듯, 군대가 들어오면 곧 여성들이 뒤따라 상륙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여성들은 모두 젊었고 일본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그를 필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많은 위안부들이 다 일본여성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위안소가 없는 근방의 군인들은 라바울로 나들이를 온다는 것이었다.

한껏 몸치장을 하고 배에서 내린 그들은 줄은 지어 행진했는데 그 광경은 정말 볼만한 구

경거리였다고 그는 덧붙였다. <천황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는 조선인 위안부가 태반이었지만 태평양섬에는 일본인 위안부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육군위안소에서는 병사는 오후 4시까지, 하사관은 8시까지, 장교는 밤에 이들을 이용하도록 했다. 위안소시설이 넉넉했던 해군은 시설 자체에 등급을 두어 운영했다고 한다. 일본여성들은 사관만을 상대하고 조선여성들은 사관이 찾아오면 상대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병사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일본여성들은 병사가 찾아가도 상대해서는 안되었다.

해군에는 16살부터의 어린 소년 돌격대원들이 있었다. 이들은 툭툭이 연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를을 조금밖에 넣지 않은 비행기로 폭격나갈 운명이었다. 소년들은 출격전날이면 위안소에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럴 때면 내일이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오키나와에서는 같은 또래의 간부후보생들이 폭탄을 싣고 미국 해군함정을 향해 돌진해야 했다.

권병박씨가 쓴 <게라마 열도>는, 해안 근처의 굴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배를 한국정용부들이 꺼내어 나이 어린 젊은이들을 실어 날랐는데 입술이 파래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소년도 적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미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소년들과 위안부들에게 일본군은 히로뽀를 먹였다. 일본 소년들에게는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한국 여성들에게는 수치심을 없애고 불가능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김일면씨의 책에 의하면 라바울에서의 한국 위안부는 하루 90명을 꺾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관리부 군인이 칸막이 사이로 주먹밥을 넣어 주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싸움터가 넓어지는 만큼 수요가 늘어 위안부를 트럭에 싣고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군인을 찾아 다녔다고 한다. 먹을 시간도 잘 시간도 없이 다음 장소로 가는 트럭속에

서 던져주는 주먹밥을 먹고 잠을 잤다고 한다.

이러한 끔찍한 살 속에서 한국위안부와, 출격이 곧 죽음을 뜻하는 육해군의 소년들은 완전히 모든 탈을 벗어던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을 가진 모양이다. 다음날 그 소년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위안부는 그의 죽음을 목놓아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름을 쓴 종이를 방 한쪽에 세워놓고 꽃을 꽂아 그를 기억해 주었다는 것이다.

라바울에는 연합군의 공습이 끊이지 않아 마을 위안소는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다. 전쟁 막바지에는 폭격이 심해 군대와 위안부가 해안선을 따라 파놓은 굴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굴들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근방에서 데려온 중국인과 인도인, 한국 정용부들이 뚫으리라 짐작되는데 높이도 넓으려니와 길이도 길었다. 굴 바로 앞이 자동차 길이었고 바다와 잇닿아 있었다. 부르아 목사는, 해안선에서 수직으로 시선이 길기 때문에 5백t급의 배가 정박할 수 있어서 라바울이 해군의 요지가 된 것이라는 현지인들의 설명이다.

1989년 여름 타이 파타야에서 열린 한 국제 회의에서 만난 파루아뉴기니 대표는 자기가 어렸을 때 전쟁 끝무렵 굴 안에 위안부가 있는데도 출입구를 막고 폭파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가 목격한 굴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굴이나 참호를 폭파하는 것은 패전 뒤 일본군이 흔히 쓴 수법이었다.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상부 명령에 의해서, 또는 패전 소식을 듣고 한국위안부를 현지에 버리고 자기들만 도망가기 위해서, 연합군의 공습이 있을 것이라고 여자들을 참호에 모이게 해놓고 폭파하기도 하고, 동굴에 피신해 있는 위안부를 나오라고 하고는 기관총으로 사살하는 만행을 예사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본군이 이렇게 잔인한 수법으로 한국 위안부를 죽인 것은 물론 그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소위 '황군' (천황의 군대) 안에 여성을 두지 않는다는 철칙이 엄터리였음이, 그리고 조선민족 쇠망책의 하나로 조선여성을 멸하려던 음모가 폭로될까봐서였다.

지금 1990년 1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21세기이다. '해방'이 되고 45년이 지나도록 징용부로 끌려간 이 나라의 장정들이 머리가 흰 노인이 되도록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외지에서 살아왔다. 이런 사실도 기가 막혀라니와 정신대 위안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론조차 안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배봉기 할머니와 타이의 유유타 할머니처럼 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이 어디엔가 살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 남았으면서도 자기몸이 더럽혀졌으니 어찌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도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찾아내 남은 생을 몇몇이 고향에서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전제로서 여성의 성에 대한 관념을 철저히 바꾸는 사회적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원해서 간 것이 아닌 식민지 민족의 명예를 지고 강제동원된 위안부가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밝혀 공적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 모든 역사서술을 고쳐 써야 할 것이다.

위안부나 징용부 생각을 하면 일본에 대한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지만 일본인 중에도 과거를 뒤우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만쯤이나마 위안부들의 고통의 자취를 알아볼 수 있었다.

한국침략으로 인한 민족적 수모를 잊어서도 안되지만 감정적으로 일본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의 양심세력과 정부당국의 협력을 얻어 이 문제를 밝히고 정리하는 일은 비명에 간 위안부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요, 역사를 앞으로 이끄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일에 일본이 협력할 때 일본도 과거에서, 전쟁범죄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믿는다. ■

1.17.92 한국인보

정신대생각

정신대생각을 쓴 사람 박지현

日무성악보다 우리의 나약함 씀쓸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 중의 하나는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사실이다. 이 사실은 우리 민족의 수모이자 수치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왜 그럴까? 아마도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일 중의 하나이다. 이 문제를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日포이 정신대동원 칙령

발견 法令

[illegible][illegible][illegible]

○街裏閭閻의 法政三거를 제시한 日王 칙령이 담긴 일제의 법령전서. 【天竺二】

【天安二】

昭和十九年

法令全書

第八號

印刷局

2

COPY

3
11
62

ノ學徒ニ關シテハ朝鮮總督、臺灣ニ在ル學校ノ學徒ニ關シテハ臺灣總督トシ地方長官トアルハ朝鮮ニ在ル學校ノ學徒ニ關シテハ道知事、臺灣ニ在ル學校ノ學徒ニ關シテハ州知事又ハ廳長トス

前項ノ場合ヲ除クノ外本令中厚生大臣トアリ又ハ文部大臣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朝鮮總督、臺灣ニ在リテハ臺灣總督トシ地方長官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道知事、臺灣ニ在リテハ州知事又ハ廳長トス

本令中都道府縣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道、臺灣ニ在リテハ州又ハ廳トス

第二十四條 學徒勤勞ニハ國民勤勞報國協力令ハ之ヲ適用セズ

第二十五條 本令ニ規定スルモノノ外學徒勤勞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附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本令施行ノ際ニ國民勤勞報國協力令ニ依リテ爲ス學校在學者ノ國民勤勞報國隊ニ依ル協力ハ之ヲ本令ニ依ル學徒勤勞ト看做ス

九年八月 勅令 第五百十九號

朕女子挺身勤勞令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 御璽

昭和十九年八月二十二日

內閣總理大臣 小磯 國昭
軍需大臣 藤原銀次郎
內務大臣 大連 茂雄
厚生大臣 廣瀨 久忠

勅令第五百十九號

(官報八月二十三日)

女子挺身勤勞令

第一條 勤勞當時要員トシテノ女子(學徒勤勞令ノ適用ヲ受クベキ者ヲ除ク)ノ隊組織(以下女子挺身隊ト稱ス)ニ依ル勤勞協力ニ關スル命令ニシテ國家總動員法第五條ノ規定ニ基クモノ並ニ當該命令ニ依ル勤勞協力ヲ爲スベキ者及女子挺身隊ニ依ル從業ヲ爲ス者ノ雇入、使用、就職、從業又ハ給與其ノ他ノ從業條件ニ關スル命令ニシテ同法第六條ノ規定ニ基クモノニ關シテハ本令ノ定ムル所ニ依ル

第二條 國家總動員法第五條ノ規定ニ依ル命令ニ依リ女子ガ女子挺身隊ニ依リ爲ス勤勞協力(以下挺身勤勞ト稱ス)ハ國、地方公共團體又ハ厚生大臣若ハ地方長官(東京都ニ在リテハ警視總監以下同シ)ノ指定スル者ノ行フ命令ヲ以テ定ムル總動員業務ニ付之ヲ爲サシムルモノトス

第三條 挺身勤勞ヲ爲スベキ者(以下隊員ト稱ス)ハ國民職業能力申告令ニ依ル國民登錄者タル女子トス前項該當者以外ノ女子ハ志願ヲ爲シタル場合ニ限り隊員ト爲スコトヲ得ルモノトス

第四條 引續キ挺身勤勞ヲ爲サシムル期間ハ特別ノ事情アル場合ヲ除クノ外概ネ一年トス隊員ヲシテ引續キ一年ヲ超ニ挺身勤勞ヲ爲サシムル場合ニ於テハ隊員ノ同意アルコトヲ要ス

第五條 挺身勤勞ヲ受ケントスル者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地方長官ニ之ヲ請求又ハ申請スベシ

第六條 地方長官前條ノ規定ニ依ル請求又ハ申請アリタル場合ニ於テ女子挺身隊ヲ出動セシムル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市

町村長(市町村長ニ準ズベキモノヲ含ミ東京都ノ區ノ存スル區域並ニ京都市、大阪市、名古屋市、横浜市及神戸市ニ在リテハ區長トス以下同ジ)其ノ他ノ團體ノ長又ハ學校長ニ對シ隊員ト爲ルベキ者ヲ選拔スベキコトヲ命ズルモノトス

第七條 前條ノ命令ヲ受ケタル者ハ本人ノ年齡、身體ノ狀態、家庭ノ狀況等ヲ斟酌シ隊員ト爲ルベキ者ヲ選拔シ之ヲ地方長官ニ報告スベシ

第八條 地方長官ハ前條ノ規定ニ依ル報告アリタル者ノ中ヨリ隊員ヲ決定シ本人ニ其ノ旨ヲ挺身勤務令書ニ依リ通知シ挺身勤務ニ關シ必要ナル事項ヲ指示スルモノトス

第九條 前條ノ規定ニ依ル通知ヲ受ケタル者ハ同條ノ規定ニ依ル指示ニ從ヒ挺身勤務ヲ爲スベシ

第十條 挺身勤務ヲ爲ス場合ノ女子挺身隊ノ組織及運営並ニ其ノ隊員ノ規律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一條 地方長官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特別ノ事情アル場合ニ於テハ挺身勤務ノ全部又ハ一部ノ停止ニ關シ必要ナル措置ヲ爲スコトヲ得

第十二條 挺身勤務ニ要スル經費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特別ノ事情アル場合ヲ除クノ外其ノ挺身勤務ヲ受クル者之ヲ負擔スルモノトス

第十三條 厚生大臣(軍需省所管企業ニ於ケル勤務管理及給與ニ關スル事項ニ付テハ軍需大臣)又ハ地方長官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國家總動員法第六條ノ規定ニ基キ挺身勤務ヲ受クル事業主ニ對シ隊員ノ使用又ハ給與其ノ他ノ從業條件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隊員ガ業務上負傷シ、疾病ニ罹リ又ハ死亡シタル場合ニ於ケル本人又ハ其ノ遺族ノ扶助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第十四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隊員ト爲サザルモノトス但シ隊員ニシテ第一號又ハ第二號ニ該當スルニ至リタルモノハ此ノ限ニ在ラズ

一 陸海軍軍醫

二 陸軍大臣若ハ海軍大臣ノ所管ニ屬スル官衙(部隊及學校ヲ含ム)又ハ厚生大臣ノ指定スル工場、事業場其ノ他ノ場所ニ於テ軍事上必要ナル總動員業務ニ従事スル者

三 法令ニ依リ拘禁中ノ者

第十五條 左ノ各號ノ一ニ該當スル者ハ志願ニ依ル場合ヲ除クノ外隊員ト爲サザルモノトス

一 厚生大臣ノ指定スル總動員業務ニ従事スル者

二 家庭生活ノ根柢タル者

三 其ノ他厚生大臣ノ指定スル者

第十六條 厚生大臣又ハ地方長官ハ命令ノ定ムル所ニ依リ挺身勤務ニ關シ市町村長其ノ他ノ團體ノ長若ハ學校長又ハ隊員若ハ挺身勤務ヲ受クル事業主ヲ監督ス

第十七條 地方長官必要アリト認ムル場合ニ於テハ國家總動員法第六條ノ規定ニ基キ挺身勤務ヲ爲サザル者ニ對シ第五條ノ規定ニ依ル請求又ハ申請ニ係ル工場、事業場其ノ他ノ場所ニ就職スルコトヲ命ズルモノトス

前項ノ工場、事業場其ノ他ノ場所ノ事業主ハ國家總動員法第六條ノ規定ニ基キ同項ノ規定ニ依ル命令ヲ受ケタル者ヨリ就職申出ヲ受ケタルトキハ之ヲ雇入ルルコトヲ要ス

厚生大臣(軍需省所管企業ニ於ケル勤務管理及給與ニ關スル事項ニ付テハ軍需大臣)又ハ地方長官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國家總動員法第六條

ト認ムルトキハ國家總動員法第六條

ノ規定ニ基キ第一項ノ規定ニ依ル命令ヲ受ケタル者又ハ前項ノ事業主ニ對シ第一項ノ規定ニ依ル命令ヲ受ケタル者ノ使用、從業又ハ給與其ノ他ノ從業條件ニ關シ必要ナル命令ヲ爲スコトヲ得

第十三條第二項ノ規定ハ第一項ノ規定ニ依ル命令ヲ受ケタル者又ハ其ノ遺族ノ扶助ニ之ヲ準用ス

第十八條 第十三條ノ規定ハ地方長官又ハ國民動勞動員署長ノ爲ス指導又ハ勸奨ニ基キ女子ガ女子挺身隊ニ依リ第二條ノ規定ニ依ル總動員業務ニ付工場、事業場其ノ他ノ場所ニ於テ從業スル場合ニ之ヲ準用ス

第十九條 地方長官必要アリト認ムルトキハ本令ニ依ル其ノ事務ノ一部ヲ國民動勞動員署長ヲシテ分掌セシムルコトヲ得

第二十條 第十三條(第十七條第四項及第十八條ニ於テ準用スル場合ヲ含ム)第十六條並ニ第十七條第二項及第三項ノ規定ハ事業主タル國及都道府縣ニハ之ヲ適用セズ

十九年八月、勅令 第五百二十號

第二十一條 本令中厚生大臣トアルハ

朝鮮ニ在リテハ朝鮮總督、臺灣ニ在リテハ臺灣總督トシ、地方長官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道知事、臺灣ニ在リテハ州知事又ハ廳長トシ市町村長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府尹(京城府ニ在リテハ區長)又ハ區面長、臺灣ニ在リテハ市長又ハ郡守(澎湖廳ニ在リテハ廳長)トシ國民動勞動員署長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府尹、郡守又ハ島司、臺灣ニ在リテハ市長又ハ郡守(澎湖廳ニ在リテハ廳長)トシ都道府縣トアルハ朝鮮ニ在リテハ道、臺灣ニ在リテハ州又ハ廳トス

第二十二條 挺身動勞ニハ國民動勞報國協力令ハ之ヲ適用セズ

第二十三條 本令ニ規定スルモノノ外挺身動勞ニ關シ必要ナル事項ハ命令ヲ以テ之ヲ定ム

附一則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朕臺灣總督府監獄官制外五勅令中改正ノ件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御名 御璽

昭和十九年八月二十四日

內閣總理大臣 小磯 國昭

內務大臣 大達 茂雄

勅令第五百二十號

(官報 八月二十五日)

第一條 臺灣總督府監獄官制中左ノ通改正ス

第四條中「典獄補 專任二人 奏任」

ノ次ニ「刑務醫官 專任四人 奏任」

ヲ、「通譯 專任四人 判任」ノ次ニ

「刑務醫官補 專任五人 判任」

刑務技手 專任十六人 判任」ヲ加フ

五一九

朕¹ 女子挺身勤勞令을 裁可 하미
이에 이를 공포케 한다.

국어 학자
이 남덕교수의
번역의 일부

御名 御璽²

昭和十九年 八月二十二日

内閣總理大臣	小石幾 國昭
軍需大臣	藤原 銀次郎
内務大臣	大連 茂雄
厚生大臣	廣津 貞久 忠

註. 1. 朕(짐). 日本天皇이 자신을 말할때 中國의皇帝
(제1人稱) 칭호와 同格으로 朕(나, 내가)이라
칭하였다.

2. 御名 御璽 天皇이 "서명하고 도장 찍었다"
는 뜻으로 스스로 자신을 높여 "천황" 자를 붙였다.

칙령 제519호 (관보 8월23일)

여자 정신근로령 (女子挺身勤勞令)

제1조 근로상시요원(勤勞常時要員)으로서의
여자(학도근로령의 적용을 받을수있는자를제외함)
의 대조직(隊組織 이하 여자정신대라 칭함)
에 의한 근로협력에 관한 명령으로서 국가총동원법
(國家總動員法) 제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둔것.

12~40살 韓國여성 挺身隊동원 日총독부 法令으로 公布했다

후방근로병을 징발할

44년 8월 23일 시행 動員근거 마련

1년간 '복무' 의무화 될요하면 연장

挺身隊 日공식문서 첫발견

二慰安所狀況

一慰安所ハ所管警備隊長ヨリ 兵隊監

督下ニ警備地區內將校以下ノ爲開業

セシメアリ

二近來各種慰安設備(食堂・浴室・料理店

其他)ノ増加ト共ニ軍慰安所ハ逐次衰

微ニ微アリ

現在從軍慰安所數ハ概シ千名内外ニ

<위안소 상황문서>

日本軍이 挺身隊징용을 직접 관장했다는 사실이 日本방위청도서관에 보관해 있는 관련문서내용을 日本역사학교수가 공개함으로써 10일 최초로 공식확인됐다. 사진은 「戰時旬報」의 「위안소상황」이라는 문서.
92.1.21.
<5·15면에 관련기사·朝日新聞刊>

挺身隊 日공식문서 첫발견

挺身隊 금세기 最大 국가범죄 『모집』 아닌 체포 집단 강간행위



◇위안소라니...

태평양전쟁중 당시 일본군의 위안소. 정신대여인들은 병을 안고 죽은 것을 당하고 돌아갔다. 【東京=新報기자】

“日사죄, 1兆엔 기금내야” 주장

兵力마을포위한채 마구연행 43년경엔 처녀없이 주부까지

【東京=新報기자】 日(日本)의 위안소(慰安所) 강제강간(強姦) 집단(集團)의 위안소가 43년경엔 처녀(處女) 없이 주부(主婦)까지 연행(連行)당했다고 한다. 위안소(慰安所)는 43년경엔 처녀(處女) 없이 주부(主婦)까지 연행(連行)당했다고 한다. 위안소(慰安所)는 43년경엔 처녀(處女) 없이 주부(主婦)까지 연행(連行)당했다고 한다.



◇정신대당치에 항쟁했던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고 있는 저자이다 세이지(山田善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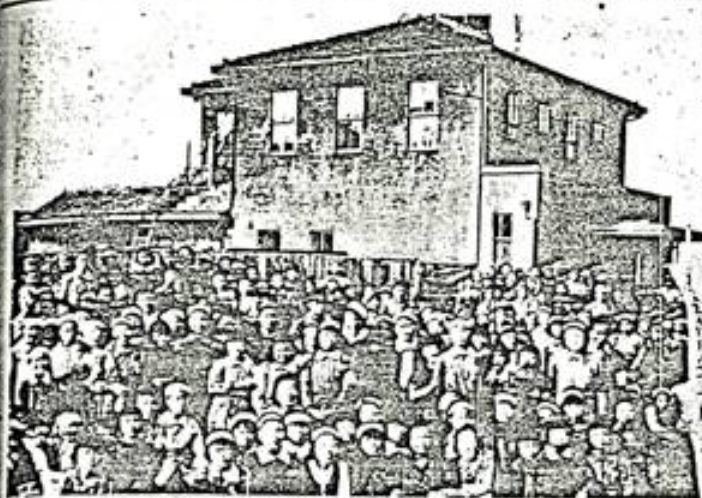
양심가책 「나의 전쟁범죄」告白錄 84년 말의 동산에 謝罪碑 세우

【東京=新報기자】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東京=新報기자】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東京=新報기자】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나는 84년 말의 동산(東山)에 謝罪碑(謝罪碑)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범죄 행위
 暴力가 애매하고 미묘한
 暴力가 애매하고 미묘한
 暴力가 애매하고 미묘한



이 가련한 少女들을... 정신대에 끌려나온 12~16세의 少女들
 신 少女들이 자신들의 비극적 운명도
 모른채 「전라북도여자노동정신대」라는 깃발을 앞세운채 日南가 시키
 는대로 미소지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上海 육군위안소 正門 일본군이 上海근교의 민가를 개조해
 설치한 육군위안소의 정문. 「물과 마
 음을 비쳐 성전에 참가한 용사를 환영하자」는 입간판이 우리 한국
 위안부의 참상을 반증하고있다.



어린소녀 짓밟은 「挺身隊현장」

정신대피해자 신고정화를 열고
 있는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장 尹貞玉)에 지난 8월의 김
 학순씨(67)신고에 이어, 두번째로
 대구에 사는 文玉珠씨(67)가 842
 년부터 해방이후에인 40년 4월까
 지 3년9개월동안 버마-태국-아유
 타이를 돌면서에서 동군위안부생
 람을 했다고 2일 신고해 왔
 다.

그는 인간이하의 위안부생활을
 숨어취해 삶을 허무로써 일본군
 인을 정당방위로 삼았던 적도 있
 다고 고백했다.

정신대 피해자

文씨는 19살때 가정형편이 어
 려워 일자리를 찾다가 한 한국남
 자의 7촌 집버는 좋은 곳을 소개해
 주었다는 말에 따라나서 동군위
 안부생활을 했다는 것.

그는 전쟁락바지에는 육군아전
 병원에서 무릎으로 간호사조수에
 합도 했고, 일본군 포전 8개월간
 에 한국에 돌아왔다.

해방후 40여년간 혼자몸으로
 파출부-보따리장사 등으로 생계
 를 이어갔다는 文씨는 요즘 7남
 여 가를 보는 것 외에는 밤에 눈을
 붙일수 없을 정도로 불면증에 시
 달리고 온 몸이 매일 수신다며,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일본
 인들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신고
 했다』고 말한다.

정신 12.8 대구 文玉珠씨 두번째 신고... 버마등서 4년간



▶ 일본군 병참부가 관장한 현지 위안소규칙.



【서울=조선일보특파원 리】 한 해를 돌아볼 때의 감회는 참으로 깊고 크다. 이 해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도 가장 슬프고도 애절한 해였다. 우리는 이 해에 대한 애환을 깊이 느끼고 있다. 이 해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 해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는가? 이 해에 우리는 어떤 일을 겪었는가?

從軍慰安부 20萬 나도 千명 연행



○1938년 일본 군정청이 만주에서 강제징발한 조선인들을 실사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일본 군정청의 기록에 남아 있다.

주미 慶尙·全羅道서 「노예사냥」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

강제징발은 한국인뿐... 감시심해 자살도 여럿

【서울=조선일보특파원 리】 주미 慶尙·全羅道에서 「노예사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가 이끄는 일본 군정청의 강제징발대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노예를 사냥하고 있다. 이 노예들은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이 노예들은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이 노예들은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東京에挺身隊하라인

모병선전체를 폭넓히 정파수집하행 설

【東京=로】 일본 언론은 「挺身隊」(정신대)를 모집하고 있다. 이 정신대는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이 정신대는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이 정신대는 주로 「포도밭수」 위인수 밀정파·관리를 사냥한 것이다.

華僑學校까지 불기다

서원 芳山·校洞校「44年學籍簿」확인

한반에서 6명·5명이 12살 당시 日교사 가책 느껴 추적

한반에서 6명·5명이 12살 당시 日교사 가책 느껴 추적

教育廳 무관심... 뒤늦게 공개

한반에서 6명·5명이 12살 당시 日교사 가책 느껴 추적

二二二日高小三級生(未發) 昭昭元

昭昭元

昭昭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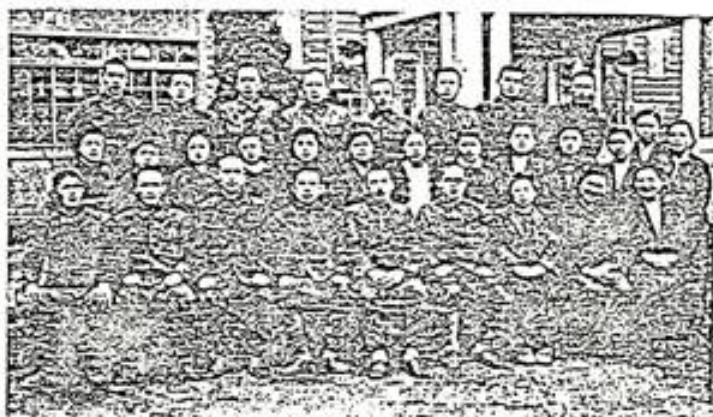
昭昭元

국교생挺身隊

日교사 점조직 극비징발

당시 芳山國校 韓人 夫부교사 폭로

동아 92 1.16



여자학교생들의 대한 정신대장들이 시작된 44년 당시 서울방안공고의 학생들. 이 사진은 1944년 1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것으로, 당시 서울방안공고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이 사진은 당시의 교육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정신대장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1944년 1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것으로, 당시 서울방안공고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이 사진은 당시의 교육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정신대장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1944년 1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것으로, 당시 서울방안공고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다. 이 사진은 당시의 교육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특히 정신대장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의 일환으로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에 협력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존엄을 훼손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을 모욕하고, 우리 나라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단결을 깨뜨리고, 우리 나라의 화합을 해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협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번영을 저해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을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 나라의 희망을 빼앗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을 모욕하고, 우리 나라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단결을 깨뜨리고, 우리 나라의 화합을 해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협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번영을 저해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을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 나라의 희망을 빼앗은 자들이다.”

이들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일본군에 협력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방해하고, 우리 나라의 민족을 멸종시키려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존엄을 훼손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을 모욕하고, 우리 나라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단결을 깨뜨리고, 우리 나라의 화합을 해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협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번영을 저해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을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 나라의 희망을 빼앗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영광을 모욕하고, 우리 나라의 명예를 실추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단결을 깨뜨리고, 우리 나라의 화합을 해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평화를 파괴하고,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협한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번영을 저해하고, 우리 나라의 발전을 막은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우리 나라의 희망을 빼앗은 자들이다.

56학년 담임선생이 앞장 “근로판매”를 일한다. 끌고가

敗戰하자 참호몰아넣고 爆死

징발...만행...비참한 최후 증인

동아 92.1.16

15살 이상은 거의 위안부로 보내
14시간 중노동 소금밥으로 끼니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 위안부가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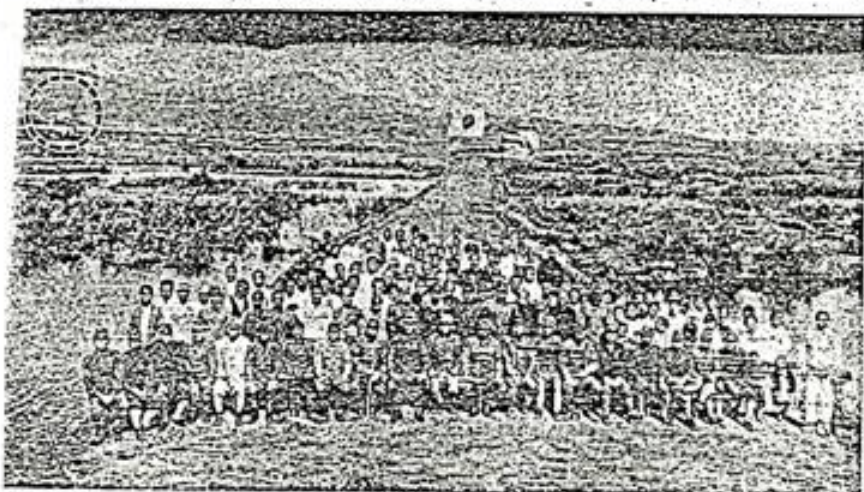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일본군에 끌려간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끌려간 모습이다.

人間的 삶이 아니었소

挺身隊누나 만나다닌 동생의恨맺힌 증언

16세때 끌려가 房마다 즐선軍人들

[illegible][illegible]

말 안들으면 "生體실험" 위협
3년간 만신창이... 구출 열달만에 숨져

[illegible]

三 四六二 四四四四
 五五五五 六六六六 七
 八八八八 九九九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워싱턴의 한미통신(KANA)이 지난주 워싱턴소재 국립문서보관소에 있는 세계 2차대전 당시의 군사정보자료속에서 당시 식민지 조선여성으로 구성된 이른바 「군위안부」에 관한 정보기록을 꺼냈다.

지난 50년간 일본정부가 모른채였던 일본군속속 군대참녀(소위挺身隊)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과 남한에서 속속 발굴되고 있으나 그 당시 프로심문을 통해 미군정보 기관이 이를 직접 수집했던 사실이 미국에서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944년통시 필리핀과 버마, 인도전선을 담당했던 연합군 사령부 소속의 정보장교들이 전선 군대위안소를 운영하다가 후퇴하던 일본인 포로와 다른 「조선인 위안부」 20명을 실은 철과 국방성(그때는 육군성으로 불렸다) 본부에 즉시 보냈으며 그것의 원인을 본 통신 기사가 직접 알릴 것이다.

보고서원문을 세월이 흘러 누렇게 낡았지만 보고일수 날짜만은 「1944년 9월21일」로 뚜렷이 남아 있어 무더운 남방전선의 더위속에서 짐승같은 채로들에게 짓밟히다가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조선여인들의 원한이 서려있는 듯 하다.

돈벌이에 눈이 뒤집혀서 수십명의 「조선인 위안부」를 데리고 남방전선을 해매던 일본인 포로가 1944년 8월10일 연합군에게 붙잡힌 뒤 털어놓은 「더러운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집지주)

포로 「M-739」는 조선의 경성(일제통치때로는 당시의 서울을 이렇게 불렀다)에 있을때 처와 처제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얼마간의 돈을 벌었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딸의 돈벌이의 궁리를 해냈다.

그는 조선사람 위안부(Comfort Girls)들을 버마전선으로 데려가겠다고 용산에 있는 조선군 사령부(간판은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 군사령부로서 지금의 이8군 사령부자리)에 청탁을 넣은 것이다.

이 일본인 포로의 말을 빌리자면 조선여인 위안부를 전선에 보내려는 착상은 여당조 「조선군사령부」에서 나온 것이며 조선에서 사는 비슷한 몇명의 일본인 상인들에게도 함께 내놓았었다는 것이다.

이자의 말을 들으면 그는 조선여성 22명을 본주로 삼고 소년들의 나이, 용모 및 풍성에 따라서 당시의 일본은 3대내지 1천원(그때 서울의 평안한 기화집 한채값은 1천2백원 정도였다)을 뒤에 남는 가족들에게 전내 주었다고 한다.

나이는 19세에서 31세까지, 용모 풍성에 따라 3백내지 1천원(일본돈)에 팔려

이렇게 팔려간 조선여인들의 나이는 19세에서 31세에 달했다. 여인들은 M-739 포로의 개인재산이 된 셈이며 일본군은 아무런 이윤도 추구하지 않았다.

이자는 마침내 그가 필요한 운송, 식량, 의약품 등의 모든 편의를 제공함을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한

부대장에게 제시한 용산 조선군 사령부발령의 소개편지를 받아냈다.

이자는 자기 처제를 서울에 남겨 두고 식당을 돌보게 한 뒤 아내와 함께 22명의 조선여인들을 데리고 1942년 7월10일 부산항을 떠났다.

그는 다른 90명의 일본인 남녀를 비롯, 모두가 조선여인들인 비슷한 처지의 소년 7대3명도 합류했다.

이들은 7척의 수송선단에 끼여있는 4천톤급 연락선에 몸을 싣고 출항했다. 일본 사령부가 이들에게 무료 승선권을 발급했다. 항해도중의 식사대는 이자가 지불했다고 말했다.

배는 항해도중 대만항구에 들머 또다른 대만여인 22명을 태우고 갔는데 이들은 싱가포르에 육박지라고 했다.

아무튼 이렇게 팔려간 여성들은 싱가포르에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같은해 8월20일 버마의 랑군에 당도했다.

랑군에 닿자마자 이들은 제각각 20명 또는 30명 단위로 나뉘어져서 버마전선의 작지로 흩어졌다. 이들은 제각기 일본군의 연대, 단위부대 또는 소부대에 배속돼 이들에게만 부대마다 하나씩 창녀집단을 거느리게 됐다.

한 부대에 20내지 30명씩 배속돼, 낮에는 하사관과 중령이, 밤에는 장교가 달겨들어...

M-739 포로가 거느린 여자들은 일본군 제114연대에 배속됐다. 그래서 Toungoo, Meiktila, Maymyo 등지에 차례로 몇달씩 머무르곤 했

다.

그곳서 창녀생활을 하던 이들은 다시 1943년 1월 제 버마의 Myitkyin이란 곳에 당도했다. 그 고장에는 벌써부터 다른 군대소속이 두곳이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옮겨가서 군대공창이 세 곳으로 늘어나 모두 63명의 창녀들이 모이게 됐다.

「코요에이」라고 불리우는 이자의 군대창녀집에는 22명의 조선여성이 창녀생활을 했다. 그밖에도 다른 「진스이」집에도 조선여인 20명이 있었고 「모모야」집에는 중국여인 21명이 살고 있었는데 중국아가씨들도 조선여인과 비슷한 조건으로 광둥성에서 팔려왔다는 것이다.

전선이 아닌 후방지역에는 왜녀(倭女)들만의 娼館도 있어 여권대 Maymyo란 고장의 창녀집 여권대에 가운데 주립이 그들만으로 영업을 했으나 전방지역에는 왜녀娼館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팔려온 이른바 군대위안부들은 누구나 비슷한 위엄조건으로 일했다.

「위안부」들은 자신이 받는 화대(花代)의 절반을 자기몫으로 생길 수 있으며 전포비와 식비는 무료이며 전선통과도 경문을 받지 않는다.

전포와 여항수당은 일본군이 제공하며 식물은 창녀집의 포주들이 군대보급소의 도둑으로 마련한다.

포주들은 데리고 있는 창녀들에게 옷감, 일용품과 사치품을 엄청난 값으로 팔아서 또다른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전선 창녀촌에는 조선, 중국여인이, 후방 사창가에는 일본 여성들도 있어

이런 여인들이 조선에 머날때 가족에게 지불했던 포주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가는 귀국선의 배표를 거쳐 얻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선상황때문에 이 포로가 데리고 있던 창녀촌의 어느 여성도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1943년 6월 버마현지의 제15군 사령부는 포주의 빚을 모두 갚은 여인들의 귀국을 추진하려고 했다. 빚을 다 갚은 여인 한명이 그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포주에게 실부당해 그대로 창녀촌에 남았다고 한다.

이자의 창녀촌에 있는 에이도이

한달에 힘껏 벌어들이 수 있는 총수입은 그때 돈으로 1천5백엔(서울 기와집 한채값) 정도였고 적을 때는 최소 3백엔밖에 벌지 못할 때도 있었다. 여자들은 창녀촌의 규칙에 따라서 매달 적어도 1백50엔 정도를 포주에게 바쳐야만 했다. 그리고 여자들이 군대손님을 받는 시간과 확대 같은 부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포주빚 갚고 고향가겠다는데도 막대한 포주는 전시장황 핑계로 안놓아줘

손님받는 시간을 잘 짜도록 해서 장교 하사관 그리고 중병들이 같은 시간에 창녀집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했다.

여자들에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도록 다짐했다. 하사관과 중병들은 1주에 꼭 한번씩만 창녀집을 찾도록 했다. 장교들은 저들이 원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었다. 「위안부」들이 확대를 받을 적에는 가로 세로 2인치길이의 두꺼운 종이로 만든 전표를 사용하도록 해서 여자들이 군인에게서 이를 거둬들인다. 전표에는 창녀집 이름과 부대 표시 그리고 확대값이 적혀있다.

먼저 이 프로의 창녀촌에는 대략 다음과 같이 확대가 매겨져 있었다.

▲ 중병: 상오 10시-하오 3시-1원 50전

▲ 하사관: 하오 3시-하오 5시-3원(엔)

▲ 장교: 저녁 9시-자정-5원

▲ 장교: 자정-아침(진밤)-20원

「挺身隊」 창녀들은 연락장교들이 관리했다

보통 연대본부의 병사 2명이 창녀촌에 파견돼 있어 창녀집을 출입하는 병사들의 신분을 감시하고 있었다. 다른 부대의 병사들도 제114연대의 장병과 함께 행동할 적에는 이 창녀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물론 거기에는 현병들의 순찰도 있었다. M-739프로의 창녀촌에는 하루 80내지 90명의 중병과 하사관 그리고 10명 또는 15명 정도의 장교들이 정준적으로 출입했다.

창녀집에서는 중병들에게 자유로이 술을 팔고 있었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병들이 단속하고 있었다.

이런 단속에도 아랑곳 없이 어느 중병이 폭음을 할 때는 흔히 현병에게 붙들려 창녀집에서 쫓겨났다. 때때로 싸움질도 벌어지지만 현병들이 나서서 이를 단속한다.

Maymyo의 창녀촌에도 비슷한 단속규정이 있었다. 다만 그곳에는 많은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일부 창녀집에는 매일 특정부대의 군인들만이 이용하도록 짜여져 있었다. 예컨대 일본여자들만이 있는 다이이쥬 후루자 유곽의 출입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일요일: 제18사단 본부참모
- 월요일: 제18사단 기갑연대
- 화요일: 제18공병연대
- 수요일: 낮에는 집전과 휴식, 저녁에는 장교출입
- 목요일: 제18사단 의무대
- 금요일: 제18사단 포병연대
- 토요일: 제18사단 전차부대

스미노에이란 이름의 또다른 창녀촌 유곽은 장교전용의 집이었다.

창녀집에 출입할적에는 피임도구를 반드시 사용토록 엄격한 지시가 있었다. 그러므로 출입하는 장병자신의 부주의만 아니면 성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이 프로는 말했다. M-739 프로가 Myitkyina 교장에서 창녀집을 운영하던 1년반동안 꼭 6건의 성병감염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모두 제18사단의 제2야전병원 의무관에게 보내져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114연대 장병가운데서도 성병에 감염된 일이 있었으나 그것때문에 이 프로가 부대본부에서 문제를 받은 적은 없었다고 한다.

창녀집을 드나드는 장병들은 일상적인 군대의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웬만해서는 군자전 문제를 토의하는 일이 없었다.

창녀들은 일본군의 數戰기색 밑 지않아

M-739 프로는 흥미있는 군사기밀을 엿들어본 적이 없었는데도 아마도 현병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병사들이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더라도 자유로이 토의하기를 꺼려했지 않나 여겨졌다.

병사들간의 흔히 있던 불평거리는 장교에 대한 비판이나 보급품의 부족, 그리고 항수병에 관한 것이었다.

군대창녀들도 연합군이 살포한 선전문구의 전단을 보긴 했어도 읽

지는 않았다. 다만 한 창녀가 그 교장의 절망적인 작전상황을 설명한 전단을 기억하고 있었으나 그녀 자신이 전단내용을 믿으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연합군측의 전선방송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병사들이 그런 방송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음은이라고 전했다.

7월31일 아밤중계 Myitkyina 교장에 있는 창녀집 세군데의 창녀 63명과 포주 그리고 포주 하인들이 그곳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했다.

창녀들은 민간부장을 한두 명으로 전한 초록색의 군복을 받쳐 입었다. 이들은 조그만 배 10척에 나뉘어 이라워디 강을 건넜다. 일본군의 대부분은 이미 이곳을 떠난 뒤였고 오로지 부상병만 남아 있었다.

후퇴하던 창녀 4명 죽고 2명은 총맞아

창녀들은 부상병에 대해 "강을 건넜더라도 걸어갈 수 없었을테니깐 부상병들을 전내줄 필요가 없었지요. 오히려 강물에 흠뻑 가도록 내버려 두는게 어쩌면 강을 건널 수 있는 요령이라도 있을테지요"라고 말했다.

그녀들은 행모우 북쪽편으로 건너가서 8월4일까지 수몰속에 남아 있었다. 그런뒤에는 후퇴하는 군대들 따라서 걸어갔다.

8월7일 소규모 전투에 휩쓸렸고 그런 혼란속에서 창녀들의 집단이 흩어지게 됐다. 약 20명의 중국여자들이 수몰속에 남아 처져 있다가 중국군이 들어오자 이들에게 투항했다. 도나온 20명의 조선여인들은 후퇴하는 일본군을 따라서 계속 걸었고 8월19일제 다른 프로들에게도 목격됐다. 절망적인 표정의 소규모 창녀집단이 그 뒤를 따라갔다.

M-739 프로가 데리고 가던 창녀들은 원주민들이 버리고 간 민집에 머물동안 머물고 있었으며 그동안 이 프로도 구명보트를 만들려고 애썼다. 이속에는 한명의 일본군 부상병도 끼어 있었다.

8월10일 영국군 장교가 지휘하는 카친 원주민들에게 이 집이 포위되고 창녀들은 모두 붙잡혔다.

먼저 후퇴에 나섰던 63명의 창녀 가운데 4명은 여행도중 죽었으며 2명은 일본군병사로 오인받아 총에 맞았다.

낮엔 중노동... 밤엔 "노리개"

생존자들이 증언하는 「지옥의挺身隊」

중간. 92.1.16
米

이름대신 번화로 불리며 밤새 시달려
먹을것 제대로 안취 생미나리 뜯어야
해방후 과거 숨겨 살다自殺한 사람도



盧漢平

1970-1980

[illegible]

黃鶴周鼎

1

ಶಾ. ೧೭/೧೭೫೭೦ ಬೆಂಗಳೂರು
ಕೆ.ಎಂ.ಎಸ್. ಸ್ವಾಮಿ

이것을 4월 24일 1945년 4월 24일

1942 20 1942 20

2015.05.15

國字の『古』と『向』

[illegible]

ನಿ ಕೊಡುವ ರಾಕೆಟ್

과거 숨겨진

제대로

2010

21. **기타**

[illegible]

三 國 志

三

三〇

어
야

咖啡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

六世達賴喇嘛的「自傳」
 中說：「我生於山南雅魯藏布
 河谷之澤，其地乃西藏之東
 部。我父名曰「嘉爾丹」，為
 該地之王。我母名曰「德吉
 卓嘎」，為一貴族之女。我
 出生時，有種種吉祥之兆，
 故取名曰「嘉爾丹」。我
 自幼即受佛法之教育，並
 習武藝。年長後，曾隨父
 征伐，立有戰功。後因不滿
 於世俗生活，遂出家為僧。
 在寺院中，精研佛法，並修
 持密法。後經高僧之薦，入
 京朝見皇帝，並受封號。回
 藏後，更致力於弘揚佛法，
 建立寺院，度化眾生。」

挺身隊치욕꼭 배상받겠다

종아
(1991.9.15)

[illegible]

13세때 滿洲 日軍병영 끌려가
위안소생활 3개월만에 탈출

韓日정부 「과거망각」에분통

[illegible]

敬啟者，本會前經呈准貴會，將本會所屬之各機關，分別移交貴會辦理，在案。茲因本會所屬之各機關，業經分別移交貴會辦理，所有本會所屬之各機關，均應由貴會負責辦理。此致貴會。



○공정회에 앞서 이날 오전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주최 '중년위안부 증언 및 보고대회'에서 증언했던 沈美子 黃錦周씨들이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정신대
日
배
생
책
임
명
백

軍犯·反人倫민행 국제법상 소멸시효 없어
한일전쟁법 물라... 청구권포기 대상안돼

[illegible]

挺身隊 피해
확인부터

한글(韓契)은 1443년(세종 24)에 훈민정음(韓契正音)으로 개칭된 우리글이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국문(國文)인 한자(漢字)를 보조하여 백성(百姓)의 문자(文字)로써 사용(使用)되도록 만든 글(契)이다. 훈민정음(韓契正音)은 한글(韓契)의 정식(正式) 명칭(名稱)이다. 한글(韓契)은 1948년(光復 33)에 한글(韓契)로 개칭(改稱)된 우리글(契)이다. 한글(韓契)은 1948년(光復 33)에 한글(韓契)로 개칭(改稱)된 우리글(契)이다.

정선대의 눈물

渡日 두할머니 귀국證言

이산도 정미대방 정미
 섬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
 더 높고 산봉우리 높고
 더 높고 산봉우리 높고
 더 높고 산봉우리 높고
 더 높고 산봉우리 높고

정선대의

渡日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두할머니

【附錄】

[illegible][illegible]

▶ 작가 박인서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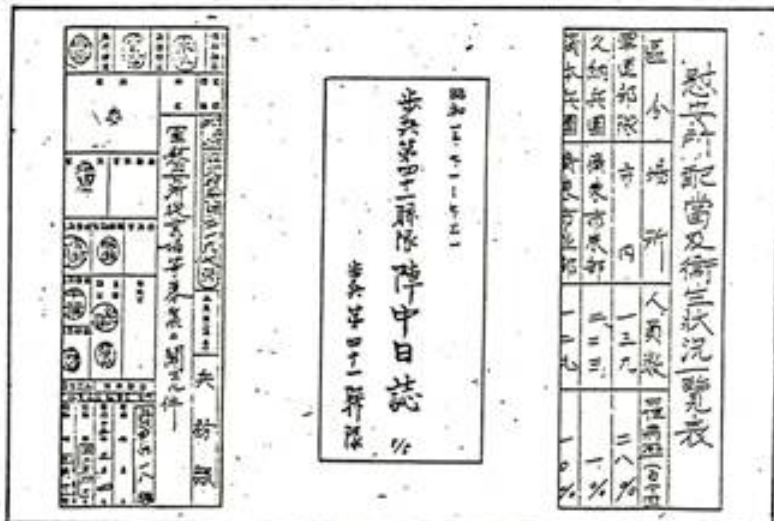


이번에 방한한 일본 총리가 정신대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하고 떠났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일본측의 공식 사과가 아니었던가 싶다. 그 바로 며칠전에 열두살 짜리까지 정신대로 끌려간게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었다. 또 그보다 앞서 정신대 징발은 민간업자가 아닌 일본군이 직접 수행했다는 공식 문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낼 만한 일이 자본처럼 서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잇따라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잇따라 나온 증빙서류가 모두 가해자 쪽인 일본인에 의해서 발견됐다는 게 우리를 서글프고도 착잡하게 했을 뿐, 발견이라고 해서 그 죄악이 정부차원에서 저질러졌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처음 안진 아니다.

우리에게 수 많은 증인이 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증인이다. 증인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종이조각만 만나왔다면 그 일이 정부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우길 작정이었던 말인가. 살아있는 증인들을 동심 취급을 해도 본수가 있지. 그러나 근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를 동심취급하고, 그 공공연한 사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었던 건 가해자쪽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 국민의 원한과 분노를 응집해 힘과 뜻대로 삼을줄을 몰랐다. 그들의 만행을 볼줄고 늘어져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줄도 몰랐다. 정용이나 거론도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신대처럼 피해국이나 가해국이 다 같이 없었던 일 취급을 하진 않았다.

時 論

정신대는 우리말의 문제



▲ 정신대 관련 문서들.

국민 또한 그 문서를 드러내놓고 거론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수군대기만 한진 그 문제가 말의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집집마다 아들의 손실보다는 딸의 손실은 축소해석하거나 팔자소관으로 돌리려 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배불리 먹여주고 돈도 벌게 해주었다며 데려간 딸이 일본군의 성적 위안을 위해 혹사당했다는 걸 알았을때 그 부모는 비록 혼자서 핏병이 나서 죽을지언정 쉬쉬 덮어두고 싶었을 것이다. 영영 안 돌아오는 딸은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래도 '환향녀'는 집안 망신일 뿐이었을테니까.

여자가 몸을 버리면 사람도 아니게 된다. 그건 결국 몸을 버리기 이전에도 온전한 사람대접을 못받았다는 소리다. 오직 순결과 정결만이 여자의 생명이라는 유구한 가르침이 그걸 증명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완전범죄를 위해 강도끝에 강간까지 하는 날 자들에 의해 오늘에도 계승발전되고 있다. 정신대가 우리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그리고 당한 인원의 수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의 증언이 미미했던 것도 근래의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인 성폭행의 고발이 없을까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日本과 獨逸의 차이

[illegible]

전면에서 계속

이전 순전히 나의 개인적 의견이
지만 패전이 임박한 45년경에 끌려
간 어린 정신대원 중에는 미처 전방
에 투입될 겨를이 없거나, 군대의
성적요구보다 더 시급한 군수공장
의 인원부족으로 노동력만 착취당
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이들을조차도
자발적인 증원을 안하는 것은 정신
대에 갔다 왔다고 하면 아무도 성한
여자라는 걸 믿지 않을테니까 감추
는게 수라는. 그 또한 성적인 피해
의식 때문이 아니었을까.

아무리 우리의 딸들이 가부장제
문화아래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가문에 끼치는 누를 최소화하기 위
해 공공연한 사실을 개인적인 원한
으로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다고 해
도 정부도 그랬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인권의 평등을 보장할 민주국가인
을 천명한 정부라면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상대가 일본이 아
닌가.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복수의
미학이 일본처럼 발달한 나라가 또
있을까. 한바탕의 복수극인 주신구
락(忠臣蔵) 얘기를 그들은 소설로
만화로 연극으로 노래로 아무리 울
거먹어도 지치지도 않고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런 그들에게 굴욕을 당
하고도 참기만 하는 우리민족이 얼
마나 우습게 보였을까. 그들의 우리
를 향한 터무니없는 고자세의 근거
가 경제적 우월감에만 있다고 봐서
는 안된다. 나의 고인 생각인지 모
르지만 증빙서류를 찾아낸 그들의
학자로서 또는 스승으로서의 개인
적인 양심조차 그들의 우월감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여 심사가 편치 않
다.

이 있다면 정성대문제대책회의의 불
비롯한 여성단체가 이미 오래전부
터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침묵과
망각을 두드려냈다는 사실이다.

1994

유레악스 인권우린 배상마땅



어제의

挺身隊배상 청구가능

法務部の견서

韓·日협정중결 구애 안받아

對日 의견제시뒤 국제재판소提訴 제의도

【東京 24日電】法務省은 24일 對日 挺身隊배상 問題에 對하여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韓·日협정굴레벗는 發想전환

挺身隊 배상청구가능 의미

국제법상 중대한 사정변경해당 피해자·物證 다수확보가 과제로

【東京 24日電】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法務省은 24일 對日 意見을 제시하고 國際재판소 提訴 제의를 하였다.

"종군위안부는 反인간성 범죄"

일본호사 "日정부 보상 마땅"



다카시 준조

"동양인은 戰後국제법따라 완결 모이" 거둬서차음이 불가한"

【도쿄 28일路透電】 다카시 준조는 28일 일본 언론에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시 준조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시 준조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挺身隊보상 有權해석

【도쿄 28일路透電】 다카시 준조는 28일 일본 언론에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시 준조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시 준조는 "종군위안부 문제는 戰後국제법에 따라 완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挺身隊보상 有權해석

going to
on that
Beyor
nervous
fense b
the regi
repeate
worry t
later w
Norther
the vac
the Sou
nese m
about h
some p
sign tha
to go ho
Discu
been esp
Defense
ing conc
Japan's
acteriza
sending
veheme
are any



◆挺身隊 배상하라.

일본정에 맞춰 汝矣島국회의사당부근에서 일본의 공개사과와 배상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있다. 이날 시위드중 희생자유록회원 朱基成씨 (70)가 실신, 숨지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록회,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등 회원들이 17일 낮 미야자와일본총리의 국회방문 일정에 맞춰 汝矣島국회의사당부근에서 일본의 공개사과와 배상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있다.

【李鍾哲기자】

th Korean
orribly r
sexual
Army
I (box). Mi
o offer any
he victims.
Tokyo last
at least ex
ed regrets.
wa hopes to
oly by mak
reign desti
nal of how
he issue of
" says one
tat idea to
ay. "I can
" says Kim
oul's Insti
dies. "But
The ques
countries

in Seoul and
ELL in Tokyo

Who Comforts the 'Comfort Women'?

If Kiichi Miyazawa can spare a few minutes while he's in Seoul this week, Hwang Keun Soo would like a word with him. It's one meeting the Japanese prime minister would undoubtedly prefer to avoid. Hwang is one of an estimated 100,000 or more women, most of them Koreans, who were enslaved in brothels serving the Japanese Imperial Army across Asia during World War II. No one has any precise idea how many of the former "comfort women" (as the victims were called) are alive today. Psychologically broken and thoroughly ashamed, most survivors of the wartime brothels have remained silent about their experiences. Hwang is a rare exception. She says she just wants to ask Miyazawa one question: "If I were your daughter, how would you feel?"

To this day, Hwang cries as she recites the events of nearly half a century ago. This is the first time she has told her story to a reporter. In 1944, she was 16 and working as a housekeeper in Seoul when she accepted what she be-

lieved was a garment-factory job. She reported for work and was put on a train with scores of other unsuspecting women. Black paper covered the windows. Their destination turned out to be a cluster of metal huts in a place Hwang didn't recognize; only then did the women realize they were prisoners. For the next 15 days, Hwang says, the women were systematically beaten and repeatedly raped. Their



Beatings and rapes: Hwang

captors, she says, were Japanese soldiers. After the brutal indoctrination, the women did their best to satisfy the sexual demands of the stream of soldiers who visited the huts. Most of the women became infected with venereal diseases, Hwang says. "Girls who suffered from infections that could not be cured were killed. We were treated like pigs and dogs."

The sight of men: She might also have died there if not for a local restaurant keeper who befriended her. The war was in its final months, and he helped her escape. She survived as a beggar, eventually making her way back to Seoul. She's 64 now and runs her own little restaurant, but she describes her life as "ruined" and herself as emotionally "crippled." "I never tried to marry," she says. "The thought and sight of men nauseated me." She seldom saw her family and never told her parents about her months in captivit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peatedly denied any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insisting that the brothels were entirely the work of private Japanese citizens. Recently, however, several new documents have come to light. Seoul produced a 1944 U.S. interrogation report on a Japanese civilian who told how Imperial Army officials aided him in importing Korean comfort women to Burma. And last week Tokyo's Asahi Shimbun reported the discovery of wartime papers that show the government's role in recruiting comfort women.

Later Foreign Minister Michio Watanabe also admitted government involvement. The new evidence could force Tokyo to think again about its refusal to pay damages to the women. Last month three former comfort women joined a law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brought by 35 South Koreans, demanding 20 million yen each in compensation for wartime atrocities. Hwang did not bother. "What good is money?" she asks. "I want the truth revealed." And nothing will help the thousands of comfort women who never lived to go home.

ROBIN BULMAN in Seoul

War Atrocities Overshadow Visit to Seoul

Thousands of Korean Women Were Forced Into Prostitution to 'Comfort' Japanese Soldiers

By T. R. Reid and Rubin Bulman
Washington Post Foreign Service

SEOUL, Jan. 15—Several hundred demonstrators chanted raucous epithets and hurled eggs at the Japanese Embassy here today, foreshadowing the tense reception that is likely to greet Japan's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when he arrives Thursday for a three-day visit.

The Korean people's animosity toward Japan, which conquered the peninsula at the start of this century and ran a brutal colonial government for four decades, has been heightened in recent weeks by new revelations about one of Japan's ugliest World War II atrocities: the enslavement of the "Comfort Women."

This was the Japanese term for an estimated 100,000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to serve as prostitutes for the entertainment of Japanese soldiers all over the Pacific theater of World War II.

In a newly filed deposition, one of the women, known as "Miss B," recalls that she was sent to a Japanese naval base on Rabaul Island at the age of 16. In a church that had been converted into a virtual factory for sex, she was forced to undergo intercourse 10 to 15 times a day, seven days a week, she said.

She was regularly beaten and once stabbed by her "clients," she says. Finally, the Japanese navy retreated from Rabaul and left the Korean woman behind on the jungle island. Eventually Miss B returned to Korea, but she was too ashamed to marry or even to return to her family.

Many women who endured similar treatment recently have begun to make their stories public. Several are party to a class action law suit filed in Japan last month on the weekend of the 50th anniversary of Japan's attack on Pearl Harbor. Others have told their stories on television and in newspaper interviews.

Now, this 50-year-old war crime



Man shouts anti-Japanese slogan during demonstration in Seoul protesting visit by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has become the most visible bilateral issue between the two Asian countries just as Miyazawa is scheduled to meet with South Korean President Roh Tae Woo.

The two neighboring democracies have other things to talk about, of course. Roh plans to talk about South Korea's growing trade deficit with Japan—about \$8 billion last year—and to seek help in reducing it. With that goal in mind, Roh has said that he will emphasize his interest in increased technological assistance from Japan for Korea's increasingly high-tech industrial base.

Roh leaders are concerned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particularly the North's apparent push to produce enriched fuel for nuclear weapons. Miyazawa may be in a strong position to influence Pyongyang, because the North is looking toward Japan for trade and economic help.

In a more general sense, a key issue at the talks will be the atmosphere of animosity toward Japan that lingers among many Koreans.

The anti-Japan feeling has been written into the lawbooks in South Korea, one of the few countries in which imports of Japanese cars and electronic products are banned. Unlike the rest of Asia, no Japanese movies or TV programs are shown here. It is even against regulations to sing Japanese songs in public.

The South Korean defense agency last year cited the possibility of a re-armed Japan as one of its military threats. Miyazawa, the pacifist leader of a nation that is still largely pacifist, has said he is determined to prove to Roh that there is no security threat from Japan.

But no issue has drawn more attention here recently than the fate of the Korean women.

Television news specials have

shown old newsreel footage of filthy army encampments where miserable Korean women, some wounded and some pregnant, were forced to provide "comfort" to Japanese soldiers.

And just last weekend, a Japanese historian made public documents in Tokyo that seem to prove that the "Comfort Women" program was conceived and run by the Japanese military government. In the past, Tokyo had insisted that private companies set up the operations as contractors.

In an interview with Korean reporters in Tokyo on the eve of his trip, Miyazawa formally apologized to the Korean people for Japan's enslavement of the women.

The Japanese have maintained for two decades that no reparations are due to individuals, because the two countries agreed on government-to-government reparations in 1965. But now, government officials reportedly are considering some form of redress.

JAPAN APOLOGIZES ON KOREA SEX ISSUE

Miyazawa, in Seoul, Regretful
Over Women Forced Into
Prostitution in War

Special to The New York Times
SEOUL, South Korea, Jan. 17—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of Japan made a formal public apology here today for Japan's actions in forcing tens of thousands of Korean women to have sex with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In a speech to South Korea's National Assembly, Mr. Miyazawa said: "Recently, the issue of 'comfort women' in the service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has come into light. I cannot help feeling acutely distressed over this, and I express my sincerest apology."

Mr. Miyazawa's visit to Seoul has been preceded and accompanied by vociferous campaigning in the South Korean press for an apology from the Prime Minister, and for compensation from Japan for the surviving women.

This call has been echoed by protesters in South Korean cities.

Estimates Up to 200,000

Korean historians estimate that 190,000 to 200,000 Korean women were forced to have sex with Japanese soldiers before 1945, when Japanese colonial rule ended in Korea. It is not known how many survive.

Japanese and South Korean officials said Mr. Miyazawa had also offered an apology in his second round of talks today with President Roh Tae Woo.

Mr. Miyazawa said at a joint news conference afterward that Japan would sincerely investigate the issue.

But there was no mention in their talks of compensation for the surviving women, the officials said.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for 35 years of colonial rule in Korea was settled when the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5.

Compensation Suit Filed

But last month three Korean women who say they were forced to have sex with Japanese soldiers filed a compensation suit in a Japanese court, which may set a precedent for other cases.

The issue overshadowed other topics discussed by Mr. Roh and Mr. Miyazawa, particularly South Korea's growing trade deficit with Japan.

The two leaders agreed to set up a committee to work out by June a plan of action for closing the trade gap and increasing the transfer of Japanese technology to South Korea.

South Korea was \$8.8 billion in the red in trade with Japan last year, according to some reports of South Korea's Ministry of Trade.

Wako Journal

History Scholar in Japan Exposes a Brutal Chapter

By DAVID E. SANGER

Special to The New York Times

WAKO, Japan, Jan. 23 — When Japan's television networks recently began broadcasting the accounts of Korean women and girls who were kidnapped and forced to serve in battlefront brothels for the Imperial Army, even Japanese who prefer never to think about World War II said they felt shamed by the years of agony the women endured.

Bu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the same ready answer it has had for decades: A few words of sympathy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victims whose lives were shattered, and a curt dismissal of their demands for Government compensation. The brothels, Japan's Foreign Ministry said, were run by private entrepreneurs, not the Government. No one in the Foreign Ministry, though, was ready for Yoshiaki Yoshimi.

Mr. Yoshimi, a history professor with a knack for coming up with historical documents that Japan would prefer to keep buried, listened to the Government's assertions on television in his cramped apartment here last month and knew immediately that the Government was rewriting history.

"I was outraged," he said the other day. "And I knew that clear evidence existed that would force the Government to acknowledge its responsibility."

Debunking the Myth

Over the last three weeks, Mr. Yoshimi singlehandedly debunked the myth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not organized and run the brothels. He created a sensation in Tokyo and Seoul and forced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to issue a formal apology to the Korean people.

This week, reversing decades of flat refusals, Mr. Miyazawa conceded that the Government would have to find some way of redressing the women's grievances, though he stopped short of promising financial reparations to what Japan euphemistically calls the "comfort women."

In Japan, social pressures not to challenge the status quo are overwhelming. War atrocities are a particular taboo. "I have lived here all my life, and I know that Japan only talks about half of its history," Mr. Yoshimi said. "The half where Japan is victimized."

It is widely believed that Japan started building "comfort stations" in the mid-1930's, and 100,000 to 200,000 women were eventually lured or dragged to Japanese battlefronts across Asia. Most were children and teenagers from Korea, a Japanese colony from 1910 to 1945, but many others came from China and a few from Japan itself.

Confined to filthy shanties, the women were forced to have sex with



Kim Hak Sun, center, a former "comfort woman" who was forced to work in brothels for Japanese troops in World War II, taking part in demonstration on Jan. 13 in Seoul, South Korea, against a visit by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of Japan, which took place a few days later.

on Jan. 13 in Seoul, South Korea, against a visit by Prime Minister Kiichi Miyazawa of Japan, which took place a few days later.

soldiers, who were often rotated through the "comfort stations" day and night at 15 minute intervals. Venereal disease was rampant. Thousands of the women died, including many who were apparently killed by soldiers.

Virginity is a virtual requisite for marriage in Korean society, and many of the survivors were shunned by their families when they returned.

Until recently South Korea's school textbooks, like Japan's, have scarcely mentioned the women's plight. With news organizations focused on the 50th anniversary of Pearl Harbor, however, a few of the surviving Korean "comfort women" decided the moment was ripe to press their case.

Three came to Tokyo in December to file a damages sui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prompting the Government's chief spokesman, Koichi Kato, to reiterate that Japan considered all of its war reparations to South Korea paid, and to deny that the army had organized or run the brothels.

Apart from the "comfort women" themselves, no one seemed ready to dispute that reading of history. But as he watched on television, Mr. Yoshimi recalled that a few years ago, combing through the Self-Defense Agency's library to research Japan's use of poison gas during the war, he had tripped across a military order to

set up a brothel.

Born outside Hiroshima in 1946, Mr. Yoshimi has spent his professional life trying to get a glimpse of a war he is too young to remember. "I grew up hearing my older brothers and sisters tell about the day they saw a mushroom cloud erupt from the center of the city," he said. "I could feel the war misery. I've always wanted to grasp what happened."

Certain that more documents existed that would disprove the Government's contention, Mr. Yoshimi returned to the library over the New Year's holiday. In two days of searching, he came up with a small trove, including one document titled "Regarding the Recruitment of Women for Military Brothels." It ordered the quick construction of "facilities for sexual comfort," to stop the troops occupying China from raping women in the regions they controlled. It bears the "hanko," or personal stamps, of leaders of the high command of the Japanese Army.

Documents Given to Reporter

Mr. Yoshimi handed the documents to a reporter at the Asahi Shimbun, one of Japan's largest dailies, just before Mr. Miyazawa traveled to South Korea for a meeting with President Roh Tae Woo. Almost overnight, the Government's arguments collapsed.

In South Korea, where anger over the issue was already on the rise, protesters threw rocks at the Japanese Embassy and burned Emperor Akihito in effigy. Mr. Roh's Government has demanded compensation for the women, though Japan still argues that issues of reparation were settled in 1965, in a treaty normalizing relations with Seoul. Korea has retaliated by ordering its school books to be revised with more detailed and graphic accounts of the fate of the women.

Back in Tokyo, a telephone line set up last week by groups supporting the comfort women drew 230 calls, the vast majority from men in their 60's and 70's who confirmed that the military established and ran the brothels, and confessed to using them.

The Japanese press reported that a 71-year-old Japanese woman, a sixth-grade teacher in Korea during the war, called to tell how she was ordered by the principal to choose "physically well-developed" girls for war service. She chose eight girls, thinking, she said, that they would be put to work in an aircraft-parts factory. Back in Korea a few years ago, she visited some other former students and learned the truth.

"I could not meet the women," she said. "They were still too hurt, physically and mentally. I am so very sorry."

Korean activist pressures Japan to acknowledge prostitution

'Comfort women'

According to researchers, young unmarried girls were rounded up by provincial administrators, told that they were being enlisted in a volunteer corps of so-called "comfort women," and sent to the front lines. There, the prospect of rolling bandages and ministering to wounded soldiers as nurses' aides vanished, as they came to realize the full extent of the Japanese-coined term "jungshindae," meaning to devote one's being to the cause of the Emperor.

"At that time, nobody knew that these women would literally be required to give their bodies to the war effort," says Namhi Wagner, head of the Korean language program at Harvard.

Wagner, who was born in Korea but lived for many years in Japan, says she can understand why the "comfort women" who survived the war years have been so reluctant to reveal their experiences.

"For women of my generation, coming from a society that was so conservative, it's just not something that you could feel free to talk about," she says. "But Korea is a different society now, and people finally

have gotten the courage to speak up."

Response to hotline

For the past 12 years, researchers have been trying to locate surviving "jungshindae" in Korea, with no success. But when a telephone hotline was set up in Seoul in January, more than 70 women responded. Chung-Ock Yun, a former English professor at Ewha University who is a colleague and close friend of professor Lee, has been working with student researchers since then to record the recollections of these women, many of whose memories are beginning to fade.

Several weeks ago, professor Lee sat down with a woman in a small central-province town who was still visibly shaken from having told her son and daughter-in-law about her wartime experience for the first time.

"Her son told me it took three days for her to tell them the story, she was so ashamed," professor Lee adds. "After that, she didn't want to talk to us, but her son insisted. He said, 'You must,' and he was right."

(정신대 대책협의회 활동) (최근)

- 1992. 2. 12 5차 수요정기시위
- 1992. 2. 18 "정신대" 첫 증언자 김학순 할머니 격심자병원에 입원
- 1992. 2. 21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김학순 할머니 무료입원 요청 공문 발송
- 1992. 2. 19 6차 수요정기시위
- 1992. 2. 26 7차 수요정기시위
- 1992. 2. 28 교회여성연합회 회원 28명(위안부 할머니 2명)이 일본현지에서
- ~ 3. 7 "종군위안부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제목으로 주모여배 트립
- 1992. 2. 29 현재 "정신대" 신고선타 신고접수 종군위안부 70명(생존 41명)
- 1992. 3. 4 군트정신대 90명(생존자 70명), 기타 40명
- 1992. 3. 8 8차 수요정기시위
- 1992. 3. 8 전북 전주시 교회 연합 3.1기념여배시 박순금 공동대표
- "정신대문제 강연"
- 1992. 3. 11 9차 수요정기시위
- 1992. 3. 17 이호재 공동대표의 "유엔 인권위원회 정신대문제 상정보고"
- 기자회견
- 1992. 3. 18 9차 수요정기시위
- 1992. 3. 25 10차 수요정기시위
- 1992. 3. 27 본 협의회 김신실 선생, 위안부 문옥주 할머니 일본 후쿠오카
- 시민단체 초청으로 강연자 일본 방문
- 1992. 4. 1 11차 수요정기시위
- 1992. 4. 8 12차 수요정기시위
- 1992. 4. 15 13차 수요정기시위
- 1992. 4. 22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일본현지 주모여배 보고회"와 "심미자
- 할머니, 황금주 할머니 증언"
- 14차 수요정기시위
- 본 협의회 주최 "정신대 문제와 한.일 정부의 책임" 공청회
- 1992. 4. 29 15차 수요정기시위
- 1992. 5. 1 5월 가정의 달 "정신대" 할머니들 경토잔치
- ~ 2
- 1992. 5. 6 16차 수요정기시위
- 1992. 5. 9 본 협의회 김신실 선생, 문옥주 할머니, 아마시다 영이 문옥주
- ~ 11 할머니 "시모노세기 우체국에 저금" 증언과 관련 일본 방문
- 1992. 6. 7 "전후보상실현을 위한 한.일 심포지움" (여정)
- 1992. 7 윤정옥 공동대표 "정신대" 자료 수집차 일본인 림과 같이 중국 방문
- 1992. 8 이호재 공동대표와 전 종군위안부 황금주 할머니 스위스 방문
- 유엔 인천위에서 증언
- 1992. 11 황금주 할머니 북미방문예정. 83

정신대 대책협의회
1992년 1월 1일 창립
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11층
전화: 02-3761-1111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발족

美동부지역 활동 본격화 전망

미동부지역에 정신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조직이 일종의 새 양으로 정신대 문제에 관한 활동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뉴욕 한인회와 정신대 대책추진기구, 교회협의회, 뉴욕 한인상회, 뉴욕인YWCA, 뉴욕일본선지회, 뉴욕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뉴욕 및 뉴저지 일원의 16개 단체들은 지난 28일 「미동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욕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정신대 문제에 관한 활동 창구를 뉴욕인인 YWCA로 일원화 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주 회합을 가진 이들 기관 대표들은 UN에 보낸 청원서 채택과 함께 앞으로 연례별 1-3명씩 구상 예정인 식물 및 중앙위 「의회」를 통해 오는 11월에 「의회」를 갖는 캐나다 토론 「미정신대문제 연구회」를 연대를 뉴욕에 초빙, 유엔 총 대사로 한 중언대로 불렀기로 하고 유엔과 유엔대사관 앞에서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이날 발족된 대책위의 회는 또 신고병 환자센터 설립, 앞으로 뉴욕 및 뉴저지에 있는 관련 계층 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이에 관한 회의 사항은 정기 집회와 유엔 정신대문제 조사단 및 인권위원회, 계속 정주, 활동할 방침이다.

뉴욕지역에 있는 관련 계층 자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이에 관한 회의 사항은 정기 집회와 유엔 정신대문제 조사단 및 인권위원회, 계속 정주, 활동할 방침이다.

뉴욕 한인회와 정신대 대책추진기구, 교회협의회, 뉴욕 한인상회, 뉴욕인YWCA, 뉴욕일본선지회, 뉴욕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뉴욕 및 뉴저지 일원의 16개 단체들은 지난 28일 「미동부 한국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욕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정신대 문제에 관한 활동 창구를 뉴욕인인 YWCA로 일원화 시키기로 합의했다.

지난주 회합을 가진 이들 기관 대표들은 UN에 보낸 청원서 채택과 함께 앞으로 연례별 1-3명씩 구상 예정인 식물 및 중앙위 「의회」를 통해 오는 11월에 「의회」를 갖는 캐나다 토론 「미정신대문제 연구회」를 연대를 뉴욕에 초빙, 유엔 총 대사로 한 중언대로 불렀기로 하고 유엔과 유엔대사관 앞에서 문제해결 촉구를 위한 시위를 벌이기로 결심했다.



▲16개 한인단체 대표 27명은 28일 플러싱 교향점 호텔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정신대문제 활동 일원화 기구 미동부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위의 회의를 벌였다.

시의 문제이므로 조차할 본래 본격적인 활동을 할 계획이 아니라 「이런 것」을 나가기 위한 것이다.

동 회의는 앞으로 매월 1회씩 정기적 모임을 갖고 각 단체간의 정보교환, 협력사업 등 여러가지로 하고 특히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해외 정신대 조직 및 인권단체와의 정보교환, 발표회 및 소년회산 교육 및 홍보 강화, 자료교환 등으로 정신대문제 활동을 본격화 시키기로 했다.

오는 10월 29일 오후 6시 뉴저지 신원장에서 자택 내 여중·고·고(대)생들의 모임과 재차 갖고 정신대문제 활동에 관해 토의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1987년 12월, 정신대배상과 보상 복귀자 등인, 유 도대로 한 관계 비서관을 통해 정신대 실상을 재인식하고 미정도의 뉴욕 노의 정외위원회와의 간담회, 유엔위원회 「정신대문제 해결을 위한」이 나오기까지, 특 비로한 정신대보상위원회 코디네이터 배시중씨의 그간 활동, 및 거스레와 한인회와의 일일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에서의 활동 및 앞으로의 생각, 그레이스 진 뉴욕 한인회 부회장의 정신대문제 해결과 자료 소개, 김연호목사의 한국과 캐나다 정신대문제 활동 단위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여주영 기자)

뉴욕 한국일보

1992年 10月22日(金曜日)

이런데 플러싱의 YWCA의 회합

— 광고 합니다 —

순수 민간 여성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관심있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대가 급부상한 최근 일손과 자금이 극히 부족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신대 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11822-365-4409 (Phone & Fax)

— 온라인 구좌 —

극 민 : 813-01-0182-492—정신대

능 협 : 053-01-176711—정신대

상 업 : 109-05-153750—정신대

조 흥 : 304-01-120125—정신대

美동부지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신고 및 문의, 모금 센터

뉴욕 Tel 718-353-4553

뉴저지 Tel 201-461-7313

와싱턴
와싱턴한인교회 여성교회
(Phone) 703-448-1131, (Fax) 703-448-5384
(문의처) 강순임 (703) 631-4267